

2013년도

# 제 2기 가야학아카데미 연구반

## - 한반도 문명의 교류

- 신라무덤 속 서역계 문물의 해석\_ 이한상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전쟁과 평화 : 대거란 전쟁의 배경과 과정, 그 교훈\_ 구산우 (창원대 사학과 교수)
- 무령왕릉을 통해 본 백제와 동아시아의 문물교류\_ 권오영 (한신대 한국사학과 교수)
-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_ 전호태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동아시아와 발해사\_ 한규철 (경성대 사학과 교수)
- 지역사와 교류사로서의 왜관\_ 김동철 (부산대 사학과 교수)





# 제 2기 가야학아카데미 연구반

## - 한반도 문명의 교류

- 신라무덤 속 서역계 문물의 해석\_ 이한상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전쟁과 평화 : 대거란 전쟁의 배경과 과정, 그 교훈\_ 구산우 (창원대 사학과 교수)
- 무령왕릉을 통해 본 백제와 동아시아의 문물교류\_ 권오영 (한신대 한국사학과 교수)
-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_ 전호태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동아시아와 발해사\_ 한규철 (경성대 사학과 교수)
- 지역사와 교류사로서의 왜관\_ 김동철 (부산대 사학과 교수)







## 제 2기 가야학아카데미 연구반

일자	주제	강사
10/16	신라무덤 속 서역계 문물의 해석	이한상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10/23	전쟁과 평화 : 대거란전쟁의 배경과 과정, 그 교훈	구산우 (창원대 사학과 교수)
10/30	무령왕릉을 통해 본 백제와 동아시아의 문물교류	권오영 (한신대 한국사학과 교수)
11/6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	전호태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11/13	동아시아와 발해사	한규철 (경성대 사학과 교수)
11/20	답사 (백제권)	
11/27	지역사와 교류사로서의 왜관	김동철 (부산대 사학과 교수)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 장 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수료조건 : 출석 80% 이상(총 7강좌 중 5강좌 출석), 답사 포함



# 목차

07

신라무덤 속 서역계 문물의 해석

이한상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21

전쟁과 평화 : 대거란 전쟁의 배경과 과정, 그 교훈

구산우 (창원대 사학과 교수)

39

무령왕릉을 통해 본 백제와 동아시아의 문물교류

권오영 (한신대 한국사학과 교수)

49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

전호태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67

동아시아와 발해사

한규철 (경성대 사학과 교수)

77

지역사와 교류사로서의 왜관

김동철 (부산대 사학과 교수)



1

# 신라무덤 속 서역계 문물의 해석

이한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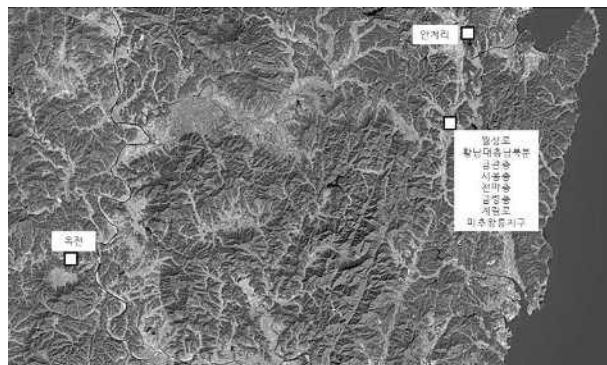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I. 머리말

일연스님이 찬술한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처용(處容)과 관련한 설화풍의 기록이 있다. 현강왕이 개운포((開雲浦, 현 울산)에 출행하였다가 용의 일곱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처용을 데리고 돌아왔으며, 처용의 관대함에 역귀(疫鬼)가 굴복한 것에 연유하여 이후 처용은 귀신을 물리치는 상징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처용이 이슬람상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sup>1)</sup>. 물론 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 또한 많다. 그렇지만 통일신라시대의 경주를 찾았던 이슬람 사람들이 남긴 견문록의 존재,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전하는 처용의 특이한 외모, 무역항으로서의 울산 등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처용의 출자를 서역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위 사서에 처용의 존재가 보이는 시기보다 400여 년 이상 오래된 신라와 가야유적에서 이미 서역계 유물이 출토된 바 있어(도1) 학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경주 시내에 조영된 적석목곽분 내부에서는 서역에서 제작된 유리그릇, 장식보검 등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은 과연 어떤 계기를 통해 신라로 전해졌을까? 이 같은 의문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이 강의에서는 신라고분 출토 서역계 유물의 현황과 그 물품의 이입 계기를 둘러싼 학계의 여러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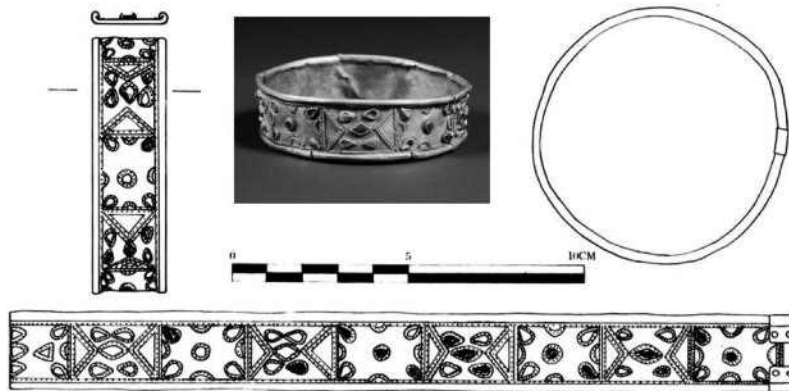


도1. 서역계 유물의 분포(경주, 합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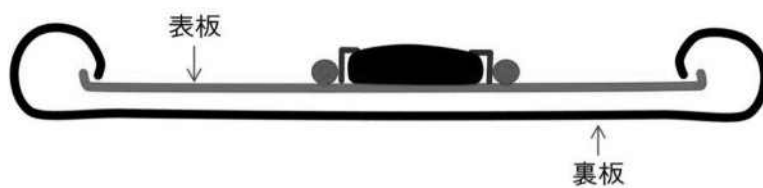
1) 이용범, 1969『처용설화의 일고찰-당대 이슬람상인과 신라-』『진단학보』32, 진단학회

## II. 감옥팔찌와 장식보검

‘황금의 나라’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신라고분에서는 수많은 황금장식이 출토된다. 그 가운데 특이한 디자인이나 제작기법이 현격하게 다른 몇 점의 유물이 있다. 신라의 왕비 무덤인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금팔찌와 계림로 14호분 출토 장식보검(국립경주박물관 2010)이 그것이다. 이 두 점의 유물은 신라의 여타 황금장식품에 비하여 독특한 디자인과 제작기법을 보이고 있다.



도2. 황남대총 북분 감옥금팔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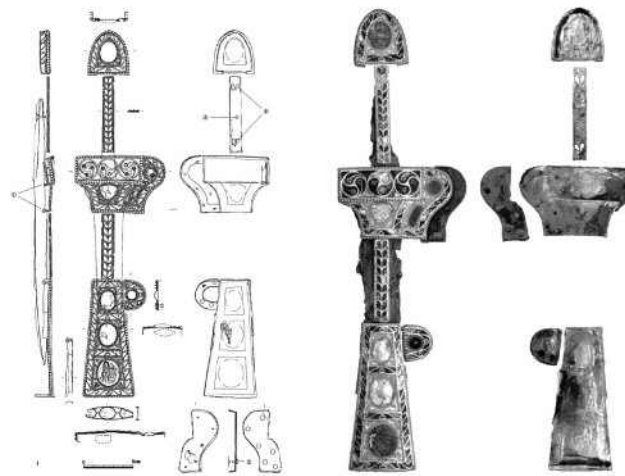


도3. 황남대총 북분 감옥팔찌 단면 모식도

황남대총 북분에서는 여러 점의 팔찌가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주인공의 왼팔에서 출토된 감옥금팔찌이다.(도2-3) 신라를 비롯한



삼국시대의 팔찌는 고리가 가늘고 단면이 둥글거나 네모난 것이 많다. 그런데 이 팔찌는 금판이 넓고 길쭉하며 세선과 세립세공이 베풀어져 있고 터키석 등 보석이 끼워져 있다. 팔찌의 몸체도 금판 2매로 만들었다. 즉 금구슬과 보석이 끼워진 판의 뒤쪽에 금판 1매를 덧대고 위와 아래로 둥글게 감아 씌웠다. 이러한 기법은 이란 등 서역의 팔찌에 유례가 보이는 기법이라 한다.(이난영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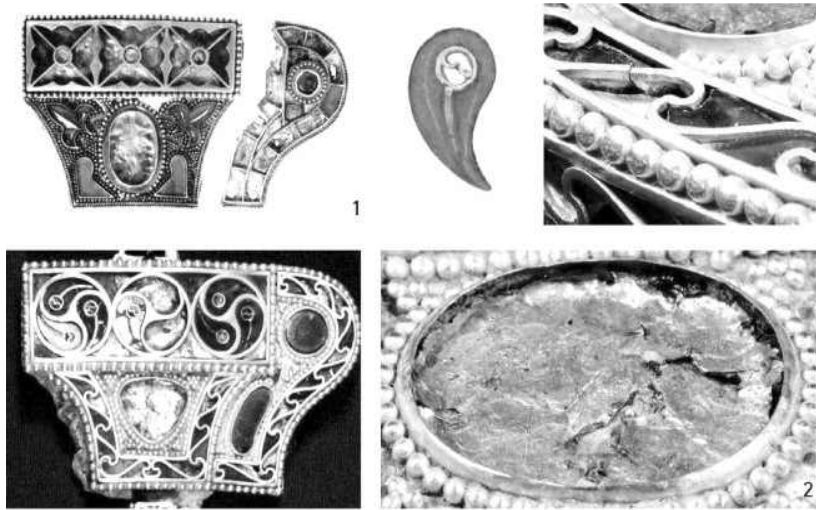
도4. 계림로 14호분 장식보검

또한 금판을 둥글게 말아 금판을 덧대고 못을 박아 고정하는 기법 역시 신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금공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마감기법이다. 아울러 신라의 금속공예품 가운데 터키석을 감입한 예가 없다.

계림로고분군은 1973년 경주 미추왕릉지구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긴급 조사되었다. 그중 14호분은 길이 3.5m, 너비 1.2m 크기의 작은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금제이식을 비롯한 황금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품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유물은 장식보검이다.(도4-5) 검신은 대부분 부식되었으며 칼집과 손잡이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표면에 윤곽을 만들고 그 속에 맑고 검붉은 석류석(국립경주박물관 2010)을 끼워 넣어 장식하

였다. 장식의 중간과 외곽에 금 알갱이를 붙여 넣어 화려함을 더하였다. 표면의 장식을 살펴보면, 먼저 손잡이 끝은 반원형이고, 손잡이장식은 세로로 가늘면서 길쭉하다. 칼집 입구의 장식은 옆으로 길쭉한 장방형 장식과 그 아래쪽에 받침모양의 장식이 부가되어 있고 칼집 끝은 사다리꼴 모양이다. 측면에는 벨트에 걸 수 있도록 2개의 돌출부를 만들었는데, 위쪽의 장식은 P자 모양이고, 아래쪽의 장식은 반원모양이다. 문양의 형태는 둥근 것과 나뭇잎 모양, 콤파모양 혹은 인동무늬 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끼워져 있다.



도5. 감옥기법의 사례(1.카자흐스탄 보로보예, 2.계림로14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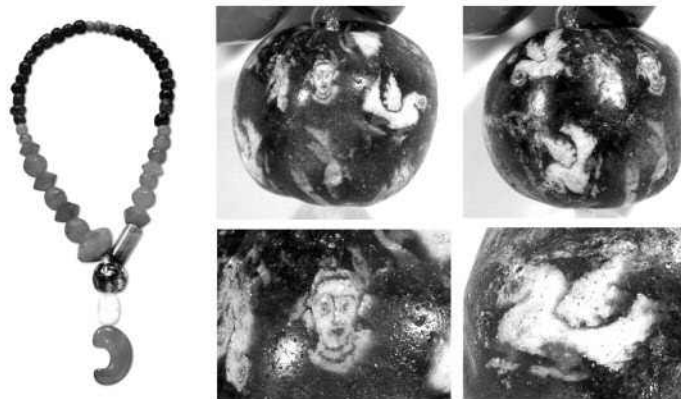
계림로 보검과 매우 유사한 의장을 지닌 칼의 실물 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중인 보로보예 출토품이 있는데 5세기대로 편년되고 있다. 그 외에 실물은 아니지만 쿠차의 키질석굴 제69굴 입구천장에 묘사된 공양인상의 허리춤에 이와 유사한 보검이 묘사되어 있다. 계림로 보검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대도의 제작기법과 비교자료(유물과 벽화)로 보아 6세기대로 편년하고 있으며 제작지를 이란 혹은 중앙아시아로 추정하고 있다.(穴澤咏光·馬目順一, 1980)

### Ⅲ. 상감유리옥과 로만글라스

신라 적석목곽분에서는 수많은 유리제품이 출토된다. 특히 남색 유리옥을 엮어 만든 목걸이는 경주 시내 대다수의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서역산이 상당수 섞여 있으니 소위 ‘로만글라스’로 불리는 유리용기와 상감유리옥이 그것이다.

1973년 실시된 미추왕릉지구의 C지구(영남대) 4호묘에서 매우 이색적인 유리구슬이 출토되었다.(김택규·이은창 1975) 파란 바탕에 하얀 얼굴, 그리고 매력적인 빨간 입술을 가진 4명의 사람이 모자이크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머리는 보관을 쓴 것 같고 노란 반점이 정면과 좌우의 3곳에 보인다. 사람은 눈이 푸르고 눈썹이 곡선을 이루며 좌우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정교한 사람들 사이에 새와 구름을 표현하였다. 작은 유리구슬에 작고 정교한 도안을 상감한 것은 유리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도6)

이 유리옥의 경우 역시 서역에서 온 것임에는 틀림없겠으나 이를 확대해석하여 ‘거울에 표현된 인물은 로마문화권의 한 지역을 통치하던 왕과 그 가족 일 가능성이 크고 그 왕이 자신의 가족 얼굴을 새겨 신라왕에게 선물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由水常雄 2001) 이러한 해석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계림로 14호분 단검에도 적용되고 있다. 즉, 로마문화권의 왕이



도6. 미추왕릉지구 출토 상감유리옥

나 켈트왕국에서 같은 종족계통의 인물인 신라왕에게 보낸 선물이라고 한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 물품이 신라의 왕릉이나 그에 준하는 무덤에서 출토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계림로14호분이나 미추왕릉지구 C지구 4호분은 소형무덤이었으며, 공반유물 역시 신라유물 일색이었다. 오히려 문물교류의 산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적석목곽분 출토 유리용기는 소다유리계통이며 대롱불기법으로 성형되었다. 대부분 로만글라스의 제작중심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시리아-팔레스티니안 지역의 어느 곳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 한다. 유사한 용기류의 분포상으로 본다면 중앙아시아의 스텝지대를 거쳐 신라로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인숙 1999)

그간 경주의 신라무덤에서는 약 20여점 이상의 유리용기가 출토되었다. 경주 외곽의 안계리4호분(지건길·조유전 1981)을 제외하면 모두 금관을 비롯한 황금유물과 공반되면서 왕족의 묘역에서만 출토된다. 특히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朝鮮總督府博物館 1932), 천마총(국립문화재연구소 1974)에서는 금관과 공반되었다. 비록 황남대총 남분에서 금관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이 무덤은 왕릉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무덤이 축조되던 시기에는 아직 금관이 장례용품으로 부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고

려한다면 유리용기는 최고급의 무덤 즉 왕과 그 일족의 무덤에 한정, 부장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당시 신라사회에서 유리용기가 최상의 물품으로 대접받고 있었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중 주목되는 유리용기는 황남대총 남분의 봉수형병이다.(도7) 연록색의 이 유리병은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오이노코에(Oinochoe)병의 일종이다. 아가리가 새의 부리처럼 생겼고 구연 아래에 1줄, 목에 11줄의 푸른색 유리줄을 둘러 장식하였다. 손잡이는 단면이 삼각형이며 몸통은 계란형이고 아래쪽에는 굽을 붙였다. 이런 유형의 용기는 동부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에



도7. 황남대총 남분 봉수형병



도8. 황남대총 북분 출토 유리그릇

서 광범위하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황남대총 북분 출토 5점의 유리용기 가운데 검색을 띠는 1점의 경우에 기벽에 기포가 많이 들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라제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도 8) 더 나아가 서역에서 온 장인이 깨진 유리와 지참한 소재를 재용융시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고 있다.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커트글라스



도9. 황남대총 북분 커트글라스

의 경우 커트문 사이에 빈 공간이 횡으로 띠를 이루며 남겨져 있는데 이를 사산조 페르시아의 커트글라스와 다른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로만글라스로 보는 견해(由水常雄 2001)와 초기 사산조페르시아의 커트글라스로 보는 견해(이인숙 1999)가 있다. 이처럼 신라분묘에서 출토되는 대다수의 유리용기는 로만글라스 후기의 작품이며 비교자료의 분포상과 제작기법으로 보아 지중해 연안지역에서 제작된 것이고

제작기법이 조악한 몇 점은 신라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IV. 서역 문물 어떻게 전해졌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라분묘에서는 서역산 금제품과 유리제품이 상당량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머나먼 신라의 무덤에



도10. 용강동석실분 토용

까지 부장되었을까 하는 문제는 아직도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추론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랍의 문헌에 신라와 아랍간의 교섭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면 적어도 통일신라 시대에는 양 지역 사이의 직접적인 인적교류가 있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특히 당문화의 확산양상이 확인되는 통일기 석실분에서 서역인상 토용(도10)이 출토되고 있고 괘릉이나 흥덕왕릉 밖 석인상에서 서역인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음을 보면 그러하다.(민병훈 1999) 다만 그보다 앞선 5~6세기대 무덤에서 출토되는 일부 서역산 또는 서역계 문물의 존재를 해석하면서 인적교류의 소산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위진남북조 시대 중국을 매개로 한 이입품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서역의 유리용기는 물론 신라분묘에서 많긴 하지만 풍소불묘나 신태천총126호분처럼 비슷한 시기의 북연·왜에서도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대 이래 위진남북조시대까지 서역 각국에서 몰려온 수많은 서역인들이 낙양과 장안 등지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고 당초 장안에 거주한 서역인의 수는 거의 만여가였다고 한다.(무함마드 간수 1992)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에 서역문물이 다수 이입되었고 자연 고구려나 신라로도 이입되었을 것이

다. 신라인들은 무덤 속에 유물을 다수 부장하는 풍습을 지니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의 무덤에 비한다면 로만글라스 등의 유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로마 유리장인의 이주 내지는 '신라인의 몸에 로마인의 피가 흘렀다'는 등의 설명은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이외에 신라의 황금문화는 도안의 모티브나 제작기법의 계보로 보아 중국의 북방이나 서역과 관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너무나 크고 도안 역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국 한족이나 선비족의 금공문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고구려의 금공문화와 연결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V. 맺음말

오랜 세월 동서양은 서로 교류 없이 제각기 발전했다. 그러다 교류를 트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실크로드, 즉 비단길이라 불리는 교통로가 개척된 것이다. 비단길이 통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다. 비단길을 통해 오랜 세월 끊겨 있던 동서양 문화의 큰 줄기가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때 신라 사람들 역시 동서양의 문화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은 위 유리그릇과 장식보검이 잘 보여준다. 그들은 주변국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경쟁하듯 해외로 나갔고, 비단길을 넘어 지금의 중동과 그 주변지역에까지 도달했던 것 같다. 그 결과 신라의 문화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심지어는 위 외래유물을 근거로, 유목민족이나 로마 사람들이 신라로 건너와 신라의 왕족이 되었다고 추정하는 극단적인 견해까지 제기되어 있다. 한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던 신라고분의 주인공, 그들은 그들의 삶과 역량을 무덤 속에 온축시켜 놓았다. 그 정보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은 고고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표1〉 삼국시대 고분 출토 유리용기 현황

구분	고분명	수량	부장위치	주요공반유물	연대	
신라	경주 시내	월성로 가-13호분	杯 2점	인물주변(불명) 신라	金製耳飾,頸飾	5세기 1/4 ↑
		황남대총 남분	鳳首形瓶 1점, 杯 3점, 甗 1점, 2점 파편	주곽 부장품 수장부(머리맡)	金銅冠7,銀冠1	5세기 중엽
		황남대총 북분	臺附甗 1점, 杯 3점, 1점 파편	부장품 수장부 (머리맡)	金冠1	5세기 3/4
		금관총	臺附杯 2점	부장품 수장부 (머리맡)	金冠1,金銅冠2	5세기 4/4
		서봉총	杯 1점,甗 1점, 1점 파편	불명	金冠1	5세기 4/4
		금령총	甗 2점	부장품 수장부 (머리맡)	金冠1	6세기 1/4
		천마총	杯 1점, 臺附杯 1점	부장품 수장부 (머리맡)	金冠1,金銅冠1	6세기 1/4
경주 외곽	안계리 4호분	杯 1점	주곽(중앙)	雲母,金球附頸飾	5세기 중엽	
가야	합천 옥전M1호분	甗 1점	주곽(발치)	金銅帶金具, 扁圓魚尾形杏葉	5세기 3/4	



## 〈참고문헌〉

- 국립경주박물관, 2000, 『신라황금』, 씨티파트너.
- 국립경주박물관, 2010, 『경주 계림로 14호묘』.
- 권영필, 1997, 『실크로드미술-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열화당.
- 김용성, 2006, 『호우총 구조복원과 피장자 검토』, 『선사와 고대』24, 한국고대학회.
- 문화재청 ICMOS-Korea, 2009, 『한국 소재 실크로드 관련 문화유산 기초자료집』.
- 민병훈, 1999, 『실크로드를 통한 역사적 문화교류』,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소나무.
- 由水常雄, 2001, 『口-マ文化王國-新羅』; 新潮社.
- 이난영, 2000, 『한국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송란, 2004, 『신라금속공예연구』; 일지사.
- 이영희, 1998, 『고신라 금속공예의 누금세공기법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인숙, 1999, 『유리와 고대 한국』,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소나무.
- 이주현·이용현, 2006, 『호우총 은령총 출토유물-토기와 청동유물을 중심으로-』, 『호우총 은령총 발굴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 이한상,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 이희준,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 임영애, 2002, 『서역인 '인가' 서역인 이미지 '인가'-통일신라미술속의 서역인식-』, 『미술사학연구』236, 한국미술사학회.
- 정수일, 2001, 『고대문명교류사』; 세계질.
- 정수일, 2001, 『실크로드학』; 창작과 비평사.
- 최병현, 1992,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 함순섭, 2008, 『신라 마립간시기에 이입된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문물』, 『신라, 서아시아를 만나다』, 국립경주박물관.



2

전쟁과 평화 : 대거란전쟁의  
배경과 과정, 그 교훈

구 산 우

---

창원대 사학과 교수



## 1. 전쟁 횟수에 대한 오해와 수정

지금까지 대거란 전쟁은 3회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연구는 다음의 것이다.

金庠基, 『高麗時代史』, 동국문화사, 1961 : 『新編高麗時代史』, 서울대출판부, 1985.

현재 학계에 널리 알려져 영향력이 가장 큰 다음의 개설서에도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

박용운, 『수정 증보판 고려시대사』, 일지사, 2008.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거질의 한국사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서술이 되어 있다.

崔圭成,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한국 역사에서 일어난 전쟁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다음의 책에도 같은 서술을 답습하고 있다.

柳在城, 『麗遼戰爭史』(민족전란사 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도 이 부분의 서술은 같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은 고려시대 거란과의 전쟁은 3차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사실일까? 필자의 연구 결론으로는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고려 초기 거란과의 대규모 전쟁은 6차례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옳다는 것이 필자가 쓴 다음 논문의 결론이다.

구산우, 「고려 현종대 대거란전쟁과 그 정치·외교적 성격」 『역사와 경계』 74, 부산경남사학회, 2010.

이런 주장은 필자의 독창적 견해가 아니며, 다음 선행 연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안주섭, 『고려 거란 전쟁』, 경인문화사, 2003.

안주섭과 필자는 고려 초기 거란과의 전쟁은 다음과 같이 6차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 1차 전쟁 : 成宗 12년(993) 10월 ~ 10월
- 2차 전쟁 : 顯宗 원년(1010) 9월 ~ 12월
- 3차 전쟁 : 현종 5년(1014) 10월 ~ 6년 1월
- 4차 전쟁 : 현종 6년(1015) 9월 ~ 7년 1월
- 5차 전쟁 : 현종 8년(1017) 8월 ~ 9월
- 6차 전쟁 : 현종 9년(1018) 10월 ~ 10년 2월 2일

현종대에만 전투가 일어난 것이 15회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에서 대규모 전투인 전쟁이 일어난 것이 5차례이다. 그렇게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거란 기록에서 都統을 임명하여 병력을 지휘하게 하는 정상적 원정 형태를 취함
- ② 거란의 원정군 편성에서 중앙군인 대군과 女眞軍이 포함됨
- ③ 거란의 전쟁 준비가 치밀함

고려 성종 ~ 현종대에 대거란전쟁이 6차례 일어난 것으로 보는 가장 최근의 책은 다음의 것이다.

김인호 임용한 한정수,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2(고려시대), 웅진지식하우스, 2011.

## 2. 1차 전쟁의 배경과 경과

### 1) 후삼국 통일 당시의 국제 정세

唐이 멸망하고 중국 대륙에서는 5대10國의 시대, 만주 일대에는 渤海가 멸망하고 거란(契丹)이 최강국으로 등장함

◎ 고려(918~1392)

934년 발해 태자 유민을 이끌고 귀순  
 935년 신라 경순왕 고려에 귀부, 신라 멸망  
 936년 후백제 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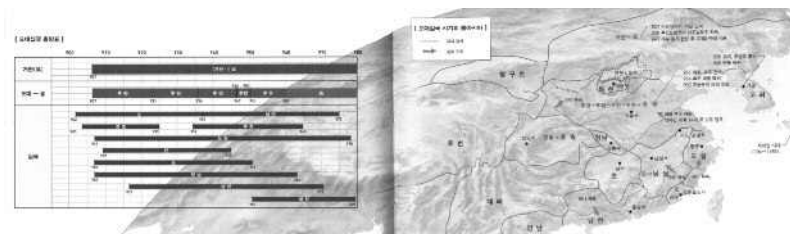


◎ 중국 왕조

907년 당 멸망, 이후 五代十國 시기(~979)

五代(강남) - 後梁 907~923 / 後唐 923~936 / 後晉 936~946 / 後漢  
 947~950 / 後周 95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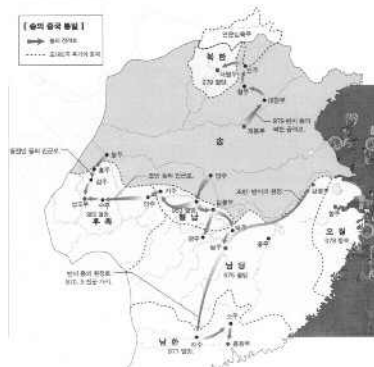
十國(화북) - 吳 902~937 / 吳越 907~978 / 荊南 907~963 / 前蜀  
 907~925 / 909~945 / 南漢 917~945 / 楚 927~951 /  
 後蜀 934~965 / 南唐 937~975 / 北漢 951~979



宋 (북송 960~1127 / 남송 1127~1279)

960년 후주의 조광윤 건국

979년 중국 통일, 북벌 개시



◎ 거란(916~1125)

916년 야율아보기 건국, 국호 거란(契丹)

926년 발해 멸망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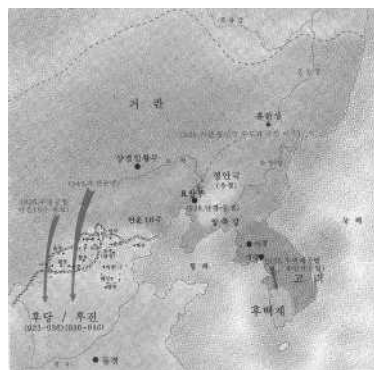
936년 燕雲 16주 차지, 후당과 싸우던 後梁 절도사 석경당이 거란에 구원

요청, 거란이 석경당을 後晉의 황제로 옹립하고 연운 16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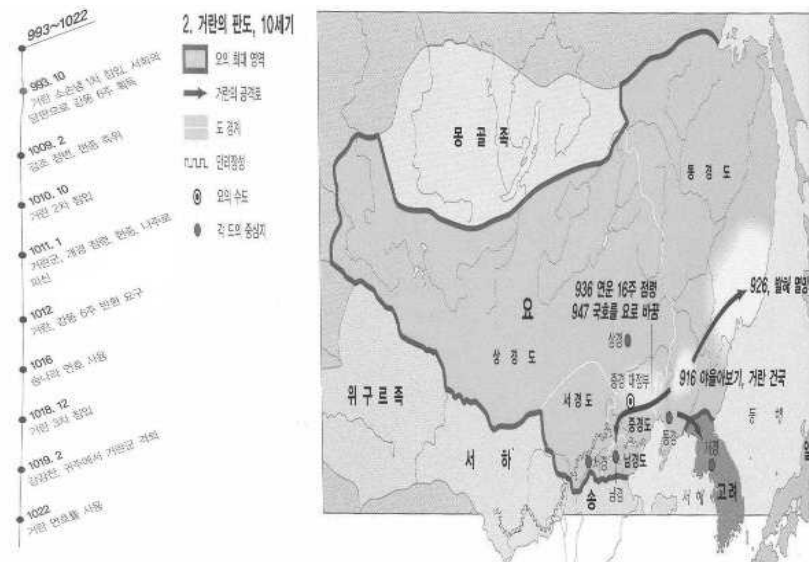
938년 국호를 遼로 바꿈

1002년 송을 침략

1004년 송과 澶淵의 맹약 체결







## 2) 왕건의 거란에 대한 인식과 북진정책

태조 26년(943)에 반포된 訓要10條의 제4조에서 “중국의 文物과 禮樂을 따르되, 반드시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란은 짐승의 나라이므로 제도를 본받지 마라.”고 했다.

왕건은 거란을 금수의 나라, 곧 야만 미개의 나라로 보았다. 그 한 해 전에 거란이 화친을 도모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 그 뜻을 전하고, 외교 선물로 낙타를 보냈으나, 왕건은 사신을 섬에 유배보내고 낙타 50마리를 만부교 아래에 꿰겨 죽였다. 태조가 강조하고 유지한 대거란 정책이 1차 전쟁이 일어나는 성종대까지 지속됨.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燕雲 16州를 차지함으로써 이미 북방을 넘어선 동북아시아 최강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그럼에도 고려는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강경 일변도의 대거란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음. 거란은 송과의 국경 문제가 진정되면, 곧 고려를 공략한다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모멸을 무릅쓰고 겉으로는 고려에 대한 유화책을 지속함.

### 3) 1차 전쟁의 발발 배경

1차 전쟁은 거란의 일방적 승리로 전개됨.



침공의 직접적 원인은 소손녕과 서희의 회담에서 잘 알 수 있음.

소손녕 :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으므로,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침범하는가.

서희 :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름도 고려이고 西京에 도읍했다. 따라서 거란의 東京도 사실 우리 땅이다.

소손녕 : 땅이 우리와 연결해 있는데, 왜 바다 건너 송을 섬기는가?

서희 : 압록강 연안도 다 우리 땅이었는데, 여진이 강점하여 거란과의 교통을 차단했다. 만일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여 거기에 성과 보를 쌓고 길을 통하게 한다면, 어찌 국교를 통하지 않겠는가.

침공의 직접적 원인은 영토 문제, 외교 관계의 두 가지인데, 그 중 거란이 더 큰 비중을 둔 것은 후자로서 고려의 송의 긴밀한 관계를 끊고, 대신 고려가 거란에 사대할 것을 요구함. 이후 거란(소손녕)은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임을 인정하고, 고려는 송과의 외교를 단절하고 거란에 사대를 하기로 약속하고, 6鎮을 얻음.

6진(6성) - 강동6주, 홍화진 귀주 용주 철주 통주 광주

전투에 패배하고 있을 당시의 고려 조정의 사정, 거란 침공에 대한 대응책은 投降論(=割地論), (답판 후의) 決戰論으로 의견이 나뉨.

태조가 나라를 창건한 후, 대를 이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나라를 보전하려는) 충신이 한 사람도 없어서 국토를 떼어주려고 하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 청컨대 금은보화를 소손녕에게 주고 그의 속마음을 타진해 보십시오. 또한 국토를 경솔히 적국에 할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先代로부터 전해오던 燃燈, 八關, 仙郎 등의 행사를 복구하고 타국의 색다른 풍습 [異法]을 행하지 말아 그리하여 국가를 보전하고 태평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여기신다면, 응당 먼저 神明에게 고하고 연후에 決戰이나 혹은 和議나 하는 문제는 오직 임금께서 결정하십시오. (李知白의 상소)

고려 왕조가 멸망할 수도 있는 급박한 국면에서 이지백의 상소 내용은 엉뚱하거나 혹은 생뚱맞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음. 그러나 그의 건의 내용은 당시 정치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 노선의 대립에서 나온 것임.

성종은 즉위 이후 유교적 체제정비를 단행함. 그 이념적 바탕을 제공한 사람이 崔承老임(時務28條). 그 결과 거란의 1차 침공 이전에 고려는 유교 이념 우위의 사상, 정책을 시행하여 오랜 전통적 사상을 담고 있는 행사를 폐지함. 이는 정치 이념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송) 중심, 유교 중심의 노선 = 華風과 우리의 전통을 고수하는 노선 = 土風의 대립임.

두 노선의 중심 인물이 최승로와 徐熙임. 거란의 1차 침공 이전에는 전자가 정치를 주도하였으나, 거란 전쟁에서 패배하자, 후자가 패전의 원인을 화풍 노선의 정책 추진에서 온 결과로 인식하고, 전자에 대해 반격을 가한 것이 위의 상소문이 담고 있는 본질적 내용임.

이후 후자가 정치를 주도하고 대거란 외교를 서희가 담당한 것임. 이상의 내용은 아래의 글이 참조됨.

具山祐, 「高麗 成宗代 對外關係의 展開와 그 政治的 性格」『韓國史研究』78, 1992.

구산우, 「高麗 成宗代 정치세력의 성격과 동향」『한국중세사연구』14, 2003.

#### 1차 전쟁 당시의 거란과 고려의 병력

거란 - 소손녕은 80만 대군이라고 주장했으나, 최대 6만명으로 추정됨(안주섭),

고려 - 30만의 光軍, 평산시 고려의 병력은 京軍 45,000명, 州縣軍 48,000명, 州鎮軍 142,000명을 합한 235,000명으로 추산됨.

사상자 - 불명

### 3. 2차 전쟁의 발발 배경과 결과

#### 1) 1차 전쟁 이후의 고려의 외교와 정치

1차 전쟁 이후 고려는 거란에 事大 외교를 충실하게 실행함. 양국 사이에 전형적인 事大(冊封-朝貢)관계가 실현됨.

成宗 사후 어린 나이로 穆宗이 즉위. 모후인 千秋太后가 攝政을 함. 그녀의 정치적 파트너이자 연인으로 등장한 이가 金致陽.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두 사람은 목종을 여러 차례 암살을 기도. 목종 뿐만 아니라 궁궐 밖에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던 훗날의 顯宗도 마찬가지로의 위협에 빠져 있었음.

목종의 요청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康兆가 천추태후와 김치양을 제거. 김치양은 죽고, 천추태후는 목숨을 부지했으나, 권력을 상실함. 강조는 목종도 폐위시키고 죽였으며, 외척이 미약한 현종을 왕위에 즉위시켜, 정권을 장악함. 강조는 목종대에 수립된 정치 질서를 전면 폐기하고, 자기 세력을 각계

에 포진시킴. 이때 목종대에 펼쳐진 거란에 대한 사대정책도 부정하고, 대거란 강경책을 다시 채택하였던 듯함.

거란은 목종의 폐위와 시해, 현종의 즉위가 그간의 사대관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2차 전쟁을 준비함. 거란이 목종의 弑害를 추궁하려는 사신을 보내자 고려가 이를 해명했으나, 거란은 고려 침공을 통보. 고려는 이를 막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거란은 이를 뿌리침.

『遼史』에 의하면, 2차 전쟁 당시에 거란 내부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음. 그럼에도 거란 성종이 전쟁을 단행한 이유는 ① 성년으로 親政하게 된 聖宗이 가시적인 정치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침공을 단행한 점 ② 강조의 집권으로 그간의 사대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③ 고려가 거란 몰래 송과 교섭했기 때문.

## 2) 전쟁의 경과



거란 병력 - 보병과 기병(낙타부대 포함)을 합해 40만, 황제 성종이 친히 원정에 참여

고려 병력 - 강조 지휘하의 30만 병력

경과 - 거란이 서경 인근까지 함락하자, 고려는 표를 올려 親朝할 것을 청함, 거란 성종은 이를 고려의 항복 선언으로 간주하고 개경을 통치하는 관리도 임명. 현종은 멀리 피난길에 오르고, 거란은 개경을 함락시키고 궁궐을 불태움.

親朝란 고려 국왕이 거란 성종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어 항복하는 의식을 말함.

고려는 처음부터 거란에 항복할 의사가 없었고, 시간 벌기 전략으로 친조를 약속함. 이후 고려는 친조를 끝내 실행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보급선의 문제 등으로 거란은 회군하지 않을 수 없었음.

고려의 전사자 - 3만 명 이상

거란의 전사자 - 회군시에 발생한 전사자만 19,500명 이상

거란군이 회군한 이후 다시 평화관계가 회복됨.

#### 4. 3~6차 전쟁의 발발 배경과 과정

2차 전쟁이 끝난 후 거란은 현종의 친조를 거듭 요구. 이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고려를 압박하기 위해, 강화 교섭차 거란 진영에 갔다가 억류된 하공진 등을 처단. 병을 핑계로 현종의 친조를 거부하자 거란은 6진을 다시 취하겠다고 함.

3차 ~ 6차 전쟁은 처음에는 현종의 친조를 빌미로 분쟁이 일어났으나, 이후 6진의 확보를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 긴장 관계가 수립됨. 거란은 2차 전쟁에서 6진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이를 회수하려고 끈질기게 요청함.

3차 ~ 6차 전쟁의 거란 병력 - 15만 명 이상





4차 전쟁의 사상자 - 고려군 수만 명, 거란군 700여 명  
 6차 전쟁의 거란 병력 - 총병력은 15만 명 이상, 총사령관 소배압이 이끄는 부대 병력 10만 명은 실제 전투에 참여.  
 6차 전쟁의 고려 병력 - 강감찬 지휘, 보병 208,300명, 기병이 12,000명 이상.  
 6차 전쟁의 결과 - 홍화진 전투에서 쇠가죽을 묶어서 막은 물을 터뜨려 승리, 매복한 고려 기병 12,000명이 큰 역할, 龜州 전투의 전사자와 그 패배 이후 도주 중의 전사자가 '들을 덮을' 지경이었고, 포로, 포획된 말과 낙타와 무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음. 거란의 정예 병력 10만 명은 거의 전멸되었음. 거란 황제가 패배 소식을 듣고 격노하여, 소배압의 '낮가죽을 벗겨 죽이겠다'고 공언할 정도의 충격적 패배를 맞봄.

## 5. 전쟁의 영향

### 1) 전쟁 이후 거란과의 관계

6차 전쟁 이후에도 고려가 사대의 예를 다하지 않자, 거란은 또 고려를 침공할 계획을 세웠으나, 고려가 외교적으로 이를 잘 수습하여 예방함. 이후 거란은 현종의 친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현종의 지위를 인정했고, 고려도 종전의 사대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다시 정상화됨.

### 2) 동북아시아 국제 관계의 재정립

거란은 전쟁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최강국의 지위를 다시 확인한 것은 사실이나, 거란이 고려를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거란도 외형적, 일시적 승리를 거둘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확인된 계기가 마련됨.

고려도 거란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인되었고, 거란에 1대1로 맞설 정도의 실력이 있음이 주변 여러 민족 - 여진족이나 송 등에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음.

따라서 이후 송 - 거란 - 고려 사이에 상호 긴장과 대립을 수반한 평화 관계가 여진이 흥기할 때까지 약 100년간 유지됨. 이 시기가 고려의 귀족사회가 안정되고 수준 높은 고려 문화가 꽃핌.

장기적으로 여진의 흥기를 방지함으로써 거란이 여진에 멸망하는 씨앗이 되었음.

### 3) 고려에 끼친 정치 사회적 영향

2차 전쟁 시에 피난길에 오른 현종이 겪은 참담한 사건들 -

현종을 호위하는 禁軍은 50명에 불과, 수행 신하는 3명만 확인됨, 積城縣丹棗驛에서는 武卒과 驛人들이 行宮에 활을 쏘. 昌化縣에서는 鄉吏가 현종에게 자신을 아느냐고 묻자 현종이 일부러 모른 척했는데, 이에 향리가 나라를 일으키자 현종이 간신히 탈출, 해를 넘겨 廣州에 머물 때 두 王后의 행방



을 수소문해야 했고, 陽城縣에서는 고을 사람들이 왕의 어명을 사칭하여 왕의 안장을 고을 사람에게 줌.

全州 參禮驛에 갔을 때에는 全州節度使가 평상복 차림으로 맞이했고, 後百濟 수도인 전주에 머물지 말 것을 건의한 주위의 권고에 따라 長谷驛에 묵자, 전주 절도사를 중심으로 그곳의 지방관들이 작당하여 시위를 감행함.

2차 전쟁이 끝난 직후인 현종 5년 11월에 崔質 金誨이 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여 이후 4개월간 정권이 유지됨, 김훈 최질이 세운 정권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무인정권임. 쿠데타 발발 원인은 관리 녹봉이 부족하여 京軍의 永業田을 빼앗아 그 재원을 충당하자는 건의가 직접적 발단이 됨. 아울러 대거란 和親論을 추구하는 당시 文臣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도 있었음.

전쟁 기간에 직접적 전쟁 피해를 입은 전장터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업 조건이 열악하게 되어 조세 감면 등의 시책이 시행되었고, 전쟁에 필요한 많은 군량미와 군수 물자의 조달 때문에 소농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짐.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던 南道 지역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지경이었음.

開京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개경 羅城을 축조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성곽의 축조와 수축이 행해짐.

『七代實錄』을 다시 편찬, 『初雕大藏經』 조판에 착수하여 대부분을 조성, 사찰 건립을 비롯한 수많은 佛事가 시행됨.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具山祐, 「高麗 顯宗代 鄉村支配體制 개편의 배경과 성격」 『한국중세사연구』1, 1994 :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 研究』, 혜안, 2003.

팔관회의 복구 - 팔관회는 단순한 불교 행사는 아니고, 전통 신앙과 결합된 행사이며,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전국을 아우르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제외교적으로 고려 군주가 皇帝라는 점, 곧 자신의 권위를 대내외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임. 전국의 界首官이 上表陳賀하고 지방의 貢物을 진상할 뿐 아니라, 송 商人, 東·西女眞의 東·西蕃, 耽羅國이 참관.

## 6. 대거란 전쟁이 가져 온 교훈 - 평화의 조건

허구적 정책의 오류 - 군사력 증강이나 성곽 등 군사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된 北進 정책의 관념적 한계, 거란의 군사력과 외교 정책에 대한 인식 결여, 宋에 대한 환상과 착각.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국내 사정 - 태조 사후 성종대까지 이어진 계속적인 왕위계승전으로 국내 정치가 불안정, 따라서 거란과 송에 대한 객관적 정세 분석이 결여됨. 그러면서도 거란을 백안시하고 송 일변도로 전개된 외교정책은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음. 華風 일변도의 편향된 정치 이념 아래에서 추진된 유교적 체제정비 정책의 시행. 이로 인한 국내 정치세력의 분열 양상이 노출된 가운데 1차 침공을 맞이함.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

- ① 상대방(적)에 대한 정확한 정세 파악과 다자간 국제 외교의 중심 축에 대한 면밀한 인식의 필요.
- ②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우리의 철저한 준비 - 병력, 무기, 군사시설, 정보력
- ③ 편향된 정책, 편향된 정치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함.

## 〈참고문헌〉

위에서 든 것 이외의 글

金在滿, 『契丹·高麗關係史研究』, 경인문화사, 1999.

김순자,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 『北方史論叢』11, 동북아역사재단, 2006.

임용한, 『전쟁과 역사2-거란·여진과의 전쟁』, 해안, 2004.

金大淵, 「高麗 顯宗의 即位와 契丹의 侵略原因」 『한국중세사연구』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李美智, 「고려시기 對거란 외교의 전개와 특징」,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2.

許仁旭, 「高麗·契丹의 압록강 지역 영토분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2.



3

무령왕릉을 통해 본 백제와  
동아시아의 문물교류

권오영

---

한신대 한국사학과 교수



## 1. 무령왕의 시대

### 1) 4~5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 낙랑과 대방의 퇴축: 고대 동아시아 교섭의 중심축이 사라짐을 의미
- 고구려의 천하관: 유연 ↔ 북위 ↔ 남조 ↔ 고구려로 4분된 다중심의 세계질서를 목표로 함.
- 동아시아의 맹주자리를 둘러싼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 중심의 천하(부여, 백제, 신라, 가야를 포함)에 대항하는 백제.
- 고구려 - 신라 vs 백제 - 가야 - 왜로 이어지는 블록의 형성과 대립  
=> 4-5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심축



〈그림 1〉 무령왕이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카카라시마의 동굴

### 2) 웅진기 백제사의 전개

- 개로왕과 한성 함락: 475년 북성(풍납토성)과 남성(몽촌토성)이 7일 만에 함락되고 개로왕은 아차산에 끌려가 살해됨.
- 사마의 탄생과 카카라시마(各羅島): 개로왕의 특사로 왜에 파견되는 곤지와 개로의 임신한 부인, 그리고 사마의 출생(그림 1).  
큐슈(九州) 카라츠(唐津)의 카카라시마(加唐島)
- 개로와 문주, 곤지의 관계: 한성말 웅진초 왕실계보의 난맥.

- 오사카(大阪)부 아스카베(飛鳥戸)신사와 근지: 아스카(飛鳥)千塚과 타카이다야마(高井田山)고분(구조와 출토유물, 장법에서 백제적: 할석으로 축조한 우편재연도의 황혈식석실에 목관을 사용한 이인병렬합장)
- 무령과 동성의 관계: 카카라시마에서 태어난 무령, 오사카에서 태어난 동성, 이복 형제간으로 추정됨. 응락은 동성에게 츠쿠시(筑紫)의 병사 500명을 딸려 보냄.

### 3) 남조와 양무제

- 동진과 남조: 동진(317-420)을 이은 송(420-479)-제(479-502)-양(502-557)-진(557-589)
- 양왕조의 성립과 무제(簞衍): 양제의 시조인 무제(그림 2)의 치세(502-549)는 양대 역사의 거의 대부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문화부흥기.



〈그림 2〉 양 무제

### 4) 새로운 왕조의 창시자, 게이타이(繼體)

- 부레츠(武烈)의 사망으로 지방호족이던 오호토(男大迹)왕이 507년 등극. 그의 아버지 히코오시(彦主人)는 시가(滋賀)의 소호족, 어머니 후리히메(振媛)는 후쿠이(福井) 호족의 딸. 즉 오호토는 철저하게 비주류.
- 시가(滋賀)현 카모이나리아마(鴨稻荷山)고분(그림 3)의 장신구의 계보문제, 후쿠이(福井)지역의 한반도계 문물, 특히 대가야계 금동관과 장신구의 문제.
- 와카야마(和歌山)현 하시모토(橋本)시 스다하치망(隅田八幡)신사의 화상경: “오호토왕이 오시사카궁에 있을 때 사마가 장수를 염원하여 가와치노아타이와 穢人 금주리를 보내어 좋은 백동 200근을 취하여 이 거울을 만들다.”
- 九州지역 수장, 이와이(磐井)와 이와토야마(岩戸山)고분: 북부 구주의 독자세력을 타도하고 전 일본열도를 통일한 계체.





〈그림 3〉 카모이나리아마고분 발굴광경

## 2. 무령왕릉의 구조와 장제

### 1) 무령왕릉의 구조

- 아치와 볼트, 공적법과 모르타르: 아치의 연속을 볼트구조라 함. 전돌의 인장력만으로 구조가 지탱되는가?
- 28가지 전돌: 大方, 中方, 急使, --壬辰年作(임진년은 512년)
- 목관(金松)과 두향(연도를 향한 부부)
- 벽감과 가창: 남조 묘제와 비교(그림 4).

### 2) 송산리 6호분과의 비교

- 벽화의 유무: 사신도로 추정. 고구려와 무관, 남조 제릉의 사신도(塼畫墓)와 유사.
- 남조 전화묘의 소재-- 사신, 우인희룡과 우인희호, 죽림칠현과 영계기 등.



〈그림 4〉 남조 전실묘

- 1인장과 2인장: 6호분 피장자는 누구인가?
- 전들의 차이: 무령왕릉과 6호분의 시간적 선후관계

### 3) 묘지와 매지권에 나타난 백제왕실의 상장의례

- 묘지의 내용: 영동대장군인 백제 사마왕은 523년 5월에 사망하여 525년 8월에 매장, 왕비는 526년 12월 사망하여 529년 2월 매장.
- 매지권의 내용: 도교적 내세관.
- 정지산유적의 발견: 웅진기 왕실 빈소(벽주건물과 기와건물, 빙고와 목책 등).
- 3년상의 실시: 27개월인가 28개월인가?
- 고구려와 왜의 삼년상과 비교.
- 장기간에 걸친 빈장의 실시 이유는?

## 3. 무령왕릉에 나타난 백제와 남조의 교류

### 1) 중국 육조 묘제와 무령왕릉

- 강소성 남경시 상방 동오묘: 동오의 황실묘
- 안휘성 마안산시 주연과 가족묘: 동오의 명신 주연의 집단묘
- 강소성 남경시 양촌 육조묘: 양-진대의 전실묘
- 강소성 남경시 호교촌 육조묘: 양대의 전실묘

### 2) 남조의 황제릉과 황족묘

- 석각: 석주와 석수, 석비로 구성.
- 신도: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신도와 배수구  
==> 풍수에 따른 묘지 선정, 독립적 배치

### 3) 육조(동오, 동진+남조)의 귀족묘

- \* 상산 왕씨묘: 왕희지 집안

- 고승 가족묘 • 사씨 가족묘 • 안씨 가족묘 • 온씨 가족묘
- ==> 군집

#### 4) 무령왕릉 출토 남조 물품

- 자기류: 월주요 청자류와 덕청요 흑자(한성기 백제유적에서는 흑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홍주요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지적됨).
- 금속기: 동완과 동탁은잔. 풍납토성 출토 금속기 모방 토기의 존재를 볼 때 한성기에 이미 도입. 웅진기는 서천 봉선리의 자료. 최근 고창 봉덕리 1호분에서도 동제 탁잔 출토.
- 진묘수: 남조와 북조는 진묘수의 형태와 조합에서 차이가 있음. 북조는 인면수신, 수면수신을 1쌍으로 배치. 남조의 진묘수는 물소가 가장 많음. 무령왕릉 진묘수와 가장 유사한 것은 6세기대 남조 황제릉으로 추정되는 남경 영산대묘 출토품(그림 5)임. 독각계 진묘수는 단순히 무덤을 지키는 벽사의 의미만이 아니라 사자의 영혼을 서왕모에게 안내하는 역할. -- 신선사상과 昇仙의 문제(웅진기 백제 왕실의 내세관을 엿볼 수 있는 소재).
- 벽사와 옹중: 탄정제 장신구의 문제. 유리동자는 옹중으로 판단됨.
- 장신구: 산발적으로 수습된 장신구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림 5〉 남경 영산대묘 출토 진묘수

#### 4. 무령왕릉을 통해 본 백제와 왜의 교류

##### 1) 청동다리미와 重層유리옥

- 무령왕릉, 타카이다야마고분 출토 청동 다리미는 진강과 강도 교장 출

토품과 유사함. --- 전형적인 남조계 다리미. 북조계 다리미와는 차이가 있음. 황남대총과 일본 나라(奈良)현 니자와센즈카(新澤千塚) 126호분 출토 다리미는 북조계.

- 금박구슬, 은박구슬, 금박샌드위치구슬, 금층유리옥

한반도에서는 낙랑토성을 비롯한 낙랑지역, 경산 임당동과 김해 양동리 고분군 등 소수의 예가 있지만 압도적인 다수는 백제유적(영산강유역 포함)에서 출토됨. 일본에서도 백제계 이주민과 관련된 유적에서 출토례가 많음(타카이다야마고분, 시토미야키타유적).

생산지는 어디인가??

## 2) 동탁은잔

- 은잔이기보다는 유개합. 섬세한 선조 기술.
- 제작지를 둘러싼 논쟁.
- 백제에서는 녹유로 번안함 --- 나주 복암리 고분 출토품과 국박소장 출토지 불명품.
- 6세기 이후 일본 각지의 수장묘에서 대유행. 특히 군마(群馬)현 간논즈카(觀音塚)고분(그림 6)과 간논야마(觀音山)고분이 유명.
- 이후 사찰의 공양기로 사용됨.



〈그림 6〉 군마현 칸논즈카고분 출토 동기

### 3) 장신구

- 관식: 나라현 후지노키(藤の木)고분 출토품, 시마네(島根)현 횡혈묘출토 금동관식과 비교.
- 용문 환두대도
- 장식도자: 군마 간논야마(觀音山)고분 출토품.

## 5. 무령왕릉이 동아시아 고고학, 고대사 연구에 끼친 영향

### 1) 연대의 고정

- 왕과 왕비의 사망연대: 523년과 526년.
- 무령왕의 후계자인 명릉(성왕)은 524년 양에 사신을 보내 부왕의 사망을 통보하고 철제 오수전(523년 주조)을 비롯한 장례용품 일괄을 보냄.
- 왕의 매장은 525년, 왕비의 매장은 529년
- 백제의 여타 유적, 가야와 신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자료의 절대연대 결정에도 영향을 끼침.

### 2) 피장자 등급의 기준

- 백제왕이면서 영동대장군의 무덤은 규모, 장제, 부장품 등에서 이렇다 고 하는 기준을 보여줌.
- 석각(석주, 석수, 석비)의 부재, 연도의 1겹 나무문(남조 황제릉은 2중 석문, 황족은 1중 석문)
- 용문환두대도의 수준: 백제 및 가야지역 용봉문환두대도의 외형 및 제작수준과 비교.

### 3) 남조식 묘장제의 원형 보존

- 극심한 도굴로 인해 원상을 간직한 무덤이 드문 육조 고분.
- 육조 고분문화 연구에도 일정한 기준을 제공.

#### 4) 6세기 일본열도의 한류

- 무령왕릉(장신구, 중층유리옥, 금속용기 중심의 부장) 신문화의 충격.
- 순장과 후장, 특히 토기와 철기 다량 부장의 신라, 가야와는 다른 새로운 장례문화.
- 무령왕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이주민(신찬성씨록, 현 덴노의 2002년 발언)

#### 5) 삼국간, 동아시아간 교류의 실상

- 중국 문명과 주변지역의 시간적 낙차를 단숨에 줄여줌.
- 가야와 신라, 일본에는 백제판 고급문물의 보급.  
===> 동아시아 문명의 고속도로.

#### 6) 새로운 연구 분야

- 백제와 동남아시아
  - 무령왕릉 출토 중층구슬, 연리문구슬, 각종 유리구슬의 산지 문제
- 백제와 인도
  - 코끼리와 마갈문, 삽화문
- 백제와 서역
  - 볼트구조, 귀갑문(육각형문)

4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

전 호 태

---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I. 머리말

7세기 중반 제작된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궁전지 벽화에는 두 사람의 고구려 사절이 등장한다. 5세기 이래 고구려와 내륙아시아 유목제국과의 교류가 계속되었고, 6세기 중엽 돌궐제국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이후, 고구려 사절이 여러 차례 돌궐 가한의 아장(牙帳)에 파견되었음을 감안하면 중앙아시아 소그드국의 아프라시압 궁전에 고구려 사절이 나타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중앙아시아 및 인도·서아시아에서 기원한 문화요소들이 회화적 제재로 자주 등장한다. 우주역사와 같은 신화적 존재, 비파나 장고로 대표되는 중앙아시아계 악기, 단축법(短縮法)이나 명암법(明暗法) 등의 서역계 회화기법을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세기 고분벽화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팔메트계 장식무늬나 같은 무늬를 사방연속으로 배치하는 기법 등도 그 기원은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및 인도·서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는 북중국을 경유지로 하는 실크로드의 내륙길 외에도 유목지대의 초원길도 적극 활용되어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다. 고구려의 사절이 5~6세기 북중국을 지배한 중국 북조(北朝) 영역으로 파견되는 일도 자주 있었지만, 몽골고원의 패자이던 유연이나 돌궐제국으로도 여러 차례 보내졌다는 사실, 고구려 고분벽화 속의 서역계 문화요소 가운데 북중국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제재나 기법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5~6세기 고구려 집안지역 고분벽화는 고구려가 실크로드의 여러 통로를 통해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지역과 어떤 문화적 교류를 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1. 4~7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서역문화적 요소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초기 작품에서부터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가 기원

인 것으로 보이는 제재가 다수 발견된다. 안악3호분 벽화의 수박희(手搏戲) 중인 서역계 역사, 부엌 부뚜막 한쪽에 묘사된 투명그릇, 심목고비(深目高鼻)의 얼굴인 무용수와 춤, 악사가 연주하는 통소와 비파, 대행렬 중의 뿔나팔과 담고(擔鼓)는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고분벽화 속의 서역문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서역 문화 요소의 종류와 내용을 고분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 표1) 과 같다.

표1) 고구려 고분벽화의 서역문화 요소(고분)

문화권	고분명	편년	서역계 문화요소
평양권	안악3호분	357	앞방 남북 동쪽 벽: 수박희 중인 역사 앞방 동쪽 곁방 동벽 북쪽 부엌 부뚜막 위의 투명그릇 회랑 대행렬도 고취악대의 뿔나팔, 담고 널방 북벽 가무연주장면의 비파, 통소, 서역인 형상 무용수와 호선무와 유사한 춤사위
	성총	5세기초	널방 벽 연화화생
	약수리벽화분	5세기초	앞방 남북 동쪽 서역계 문지기 역사
	대안리1호분	5세기 전반	널방 벽 네 모서리 서역계 우주역사
	수산리벽화분	5세기 후반	널길 동벽, 서벽 서역계 문지기장수 2인 널방 벽 상부 소슬 밑의 서역계 우주역사
	안악2호분	5세기 후반	널방 남북 동쪽벽과 서쪽벽의 문지기장수 2인
	쌍영총	5세기 후반	앞방 남북 동쪽벽과 서쪽벽의 문지기역사 2인
	진파리1호분	6세기 전반	널길 동벽과 서벽 서역계 천왕형 신장
	진파리4호분	6세기 전반	널방 벽 연화화생
	강서대묘	6세기 후반	널방 천장고임 1층 장식무늬 연화화생
	강서중묘	7세기 전반	널방 천장고임 1층 장식무늬 팔메트문
집안권	각저총	5세기 전반	널방 동남벽 씨름 중인 서역계 역사
	무용총	5세기 중엽	널방 동남벽 서역계 승려 2인 널방 천장고임 수박희 중인 서역계 역사, 뿔나팔, 연화화생
	삼실총	5세기 중엽	제1실 서벽 서역계 문지기 2인 제2실 및 제3실 벽 서역계 우주역사 3인 제2실 천장고임 연화화생

집 안 권	장천1호분	5세기 중엽	앞방 벽 백희기악도 서역계 인물들(씨름 중인 역사, 말 다루는 사람들, 수레 끄는 사람, 달아나는 사람, 말 앞에서 놀란 노인) 앞방 천장고임 각 모서리 1,3,5층 삼각석 측면 서역계 우주역사, 천장고임 1단 동쪽 쌍주작과 쌍기린, 천장고임 2단과 3단 동쪽 예불도의 여래, 비천, 남쪽과 북쪽의 보살도의 보살들과 비천, 예불도 및 보살도의 쌍인연화화생, 예불도 비천의 단축법, 천장고임 5단의 기악천이 다루는 뽕나팔, 완함
	통구사신총	6세기 전반	널길 동벽과 서벽의 문지기신장 2인
	오회분5호묘	6세기 전반	널길 동벽과 서벽의 서역계 천왕형 역사 2인 널방 벽 배경장식무늬 팔메트문
	오회분4호묘	6세기 후반	널방 벽 배경장식무늬 팔메트문, 연화화생 널방 천장고임 서역계 천인과 요고

## 2. 서역문화요소의 성격과 갈래

위의 표1)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고구려가 받아들여 고분벽화의 제재로 가지 선택한 서역문화요소는 다양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북중국이라는 중간 기착지에 머물렀다가 동방으로 전파되었을 것이고 다른 일부는 내륙아시아 초원길이라는 직행로를 따라 곧바로 고구려까지 전해졌을 것이다. 물론 시기에 따라, 종류에 따라 서역문화요소가 동방의 고구려로 전해지고 수용되는 방식과 내용은 달랐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도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고분벽화에 보이는 서역문화요소의 성격과 갈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보기로 하자.

고구려 고분벽화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서역문화요소는 서역계 인물이다. 357년 묵서묘지명이 있는 안악3호분을 비롯하여 5세기 및 6세기로 편년 되는 평양과 집안지역의 벽화고분들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서역계 인물들이 묘사되었다. 이 가운데 수레꾼이나 말 다루는 사람으로 묘사된 경우는 현실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천1호분 백희기악도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서역계 인물들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씨름과 수박희에 열중하는 서역계 인물도 현실 세계의 존재처럼 그려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안악3호분, 각저총, 무용총, 장천1호분 벽화의 씨름과 수박희는 현실에서 행해졌던 힘겨루기 놀이를 재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죽은 이의 내세여행과 관련된 장례 절차의 하나로 강한 상징성을 띤 행사를 묘사한 것일 수도 있다. 씨름과 수박희에 나선 고구려인의 상대자로 거의 예외 없이 서역계 인물을 묘사한 것 자체가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비록 관행화 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강한 힘을 지닌 존재로서 서역계 인물을 묘사함으로써 고구려에도 서역계 인물에 대한 특정한 인식이 성립해 있었음을 알게 한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해야 할 듯하다.

불교의 승려가 서역계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는 서역으로부터 이국적인 종교문화가 동방으로 전래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례이다. 무용총 벽화의 두 승려는 얼굴 생김이나 피부색, 옷차림 등으로 보아 서역에서 온 호승이 확실하다. 물론 이 전법승들이 북중국길로 동방에 왔는지 초원길로 고구려에 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서역계 인물의 형상을 한 고분벽화의 문지기는 불교의 신앙대상인 사천왕 및 금강역사 관념과 조형에서 비롯된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 약수리벽화분, 수산리벽화분, 쌍영총, 진파리1호분, 삼실총, 통구사신총, 오회분5호묘 등 5~6세기 고분벽화의 문지기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역인의 이목구비를 지닌 존재로 그려졌다. 이런 현상은 서역의 불교미술이 고구려에 전해진 뒤 불교사원의 장엄에만 쓰이지 않고 고구려 문화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며 자리 잡은 데에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특히 진파리1호분과 오회분5호묘 벽화의 문지기 신상들은 불교사원의 천왕상이나 금강역사상이 고분벽화에 그대로 옮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교미술 제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고분벽화에 하늘세계를 떠받치는 우주역사로 그려진 경우는 서역계 인물이 상상세계의 존재로 인식되고 표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수산리벽화분, 삼실총, 장천1호분 벽화의 우주역사는 이름 그대로 하늘세계를 받쳐 드는 존재로 그려졌다. 이들 고분벽화의 역사와 달리 대안리1호분 벽화에 묘사된 역사는 무덤칸 벽 모서리의 나무기둥을 대신한 존재이다. 그

러나 대안리1호분 벽화의 역사 역시 나무기둥이 상징하는 하늘세계를 받치는 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서 우주역사라고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집안의 후기 고분벽화에는 삼실총이나 장천1호분 벽화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우주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신 무덤간 벽모서리 나무기둥을 대체하는 존재로 귀면괴수형 역사가 등장한다. 이들 고분벽화에 평양권의 대안리1호분 벽화에 투영되었던 나무기둥을 대체하는 우주역사로서의 서역계 인물에 대한 인식과 조형은 계승되지 않고 있다. 집안지역과 달리 평양일대에서는 6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안리1호분 벽화에 보이는 우주역사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수산리벽화분 식의 우주역사 표현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주역사에 대한 시대적 인식 및 조형 의지는 지역문화권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천인과 보살, 여래와 같은 불교의 신앙대상이 서역계 인물로 그려진 것은 불교미술과 문화의 동방 전파로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다. 삼실총 벽화의 기약천이나 장천1호분 벽화의 여래, 보살, 천인들의 얼굴은 이국적인 이미지가 뚜렷하며 옷차림이나 장식물들에서는 간다라미술의 흔적이 읽혀진다. 특히 장천1호분 벽화에 등장하는 불교의 신앙대상들은 같은 시기 북중국의 불교사원을 장엄하던 여래, 보살, 비천들과도 구별되는 면이 있다. 이들이 초원길을 통해 곧바로 고구려에 전해진 서역 불교미술의 영향 아래 그려졌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만하다. 6세기 벽화고분인 오회분 4호묘 벽화의 요고를 연주하는 천인 역시 서역계 인물로 그려졌지만 5세기 고분벽화의 천인들만큼 강하고 뚜렷한 인상을 줄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오회분 4호묘 벽화의 천인이 어떤 경로로 고구려에 전해진 서역문화요소인지를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빈번히 모습을 드러내는 또 다른 서역문화 요소로 주목할 것은 악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물이다. 뿔나팔, 완함, 담고, 요고와 같은 악기들은 당의 구부기(九部伎)에서도 서량기(西涼伎)에 사용되는 악기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더욱이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는 인물이 서역인의 용모를 하고 있다면 서역문화가 고구려에 직접 전해졌음을 알게 하는 전거

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실제 삼실총과 장천1호분 벽화의 기악천들은 이목구비가 서역인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서역으로부터 악기와 악사가 직접 고구려에 왔음을 시사하는 좋은 자료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리그릇과 같은 사치품에 해당하는 기물이 서역에서 고구려에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안악3호분 벽화의 투명한 그릇은 부뚜막에 놓여 있어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기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사치품인 유리그릇으로 판정하기가 애매하다. 5세기와 6세기로 편년되는 고구려의 다른 고분벽화에서는 유리그릇이 보이지 않는다. 신라의 예로 볼 때 고구려에도 동서교역을 통해 유리그릇이나 유리공예품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가능성의 영역에 남겨두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서역에서 고구려로 전해진 미술 제재 가운데 장식무늬로 주목되는 것은 팔메트문이다. 집안권의 후기 고분벽화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팔메트문은 고대 지중해 연안과 서아시아 일원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유행하던 장식문이다. 팔메트문은 내륙아시아 초원지대를 지배하던 유목민족들에게도 전해졌으며 헬레니즘 문화의 동방전파 물결을 타고 이란과 인도로도 흘러들었다. 간다라미술의 한 요소로 유행한 팔메트문은 중앙아시아 불교미술의 장식무늬로도 자리 잡았다.

그러나 불교미술의 일부가 된 팔메트문이 동아시아에 전해져 유행하게 되는 과정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5호16국시대 북중국의 장식기물에서는 제대로 된 팔메트문 장식 사례가 잘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조의 장식미술에서도 지금까지는 ‘귀갑형 당초문’으로 불리는 변형팔메트문 형상의 사방연속문 장식 유물이나 유적만 몇 차례 발견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부채꼴로 펼쳐진 전형적인 팔메트문이 오희분5호묘와 오희분4호묘 벽화에 묘사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오희분5호묘와 오희분4호묘 벽화 속의 팔메트문이 어떤 경로를 거쳐 고구려에 전해지고 벽화 제재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이런 유형의 팔메트문이 남북조시대 북조미술의 한 요소로 고구려에 전해졌을 수

도 있으나 유연제국이 지배하던 초원지대를 매개로 고구려에 직접 전해진 서역문화의 한 요소로 볼 수도 있는 까닭이다.

강서중묘 벽화의 넝쿨형 팔메트문은 중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불교 장의 미술과 깊은 관련이 있었음을 유물로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의 동양학자 펠리오가 수집한 돈황유물 가운데에 강서중묘 벽화 장식무늬의 기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 팔메트문 장식 회골용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신도 무덤인 강서중묘 벽화에 불교적 색채가 비교적 강한 것도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서역에서 개발되거나 유행한 회화적 기법이 고구려에 전래되어 수용되었음이 고분벽화를 통해 확인된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서역 전래 회화기법과 관련하여 먼저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장천1호분 벽화의 비천 묘사에 적용된 단축법이다. 5세기까지 동아시아 회화에서 거의 사례가 보이지 않는 단축법이 장천1호분 벽화에서는 비천의 정면하강상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장천1호분 벽화에서와 같이 노골적으로 단축법이 적용된 다른 사례를 돈황 막고굴 초기 벽화 외의 동아시아 불교미술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장천1호분의 주인공과 서역 불교미술 문화의 고구려 전래 사이에 어떤 함수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눈길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5세기 중엽 편년 고분벽화에 초보적인 명암법을 바탕으로 한 입체적 표현이 여러 차례 시도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목필의 농담(濃淡)보다는 필선의 강약태세(強弱太細)에 주로 의존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명암법은 우주역사들을 묘사한 부분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문화권별, 혹은 시기별로 화공의 필력과 기법 소화력에 따라 차이를 드러낸다. 평양권의 대안리1호분이나 수산리벽화분의 우주역사 표현에서는 이런 기법이 제대로 구사되고 있지 못하거나 거의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집안권의 삼실총과 장천1호분 벽화의 문지기 역사 묘사에서는 익숙하다고 할 정도로 잘 구사되고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명암법은 평양권의 쌍영총 벽화 문지기 역사 표현에서도 비교적 잘 구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서역식 명암법의 전래 경로 및 수용 시기가 달라서 발생한 현상인 듯하다.

서역을 거쳤거나 서역에서 기원하여 고구려에 들어온 신화적, 종교적 관

념 역시 동서교류의 과정 및 경로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연화화생은 불교와 함께 고구려에 전해진 새로운 종교적 관념 가운데 하나이다. 속세(宿世)와 현세(現世)의 모든 인연에서 자유로워져 더 이상 육도윤회(六道輪廻)를 겪지 않아도 되는 생명이 내세에 정토에서 불교적 깨달음의 상징인 연꽃을 자궁으로 삼아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연화화생은 서역과 중국에서 크게 유행한 종교 관념이자 불교미술의 조형소재였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연화화생이 제재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연화화생을 통해 정토에서 태어나는 존재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그려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장천1호분 벽화에 묘사된 남녀쌍인연화화생은 고구려의 다른 고분벽화뿐 아니라 연화화생을 주요 모티프로 삼았던 남북조시대 중국의 석굴사원 불교미술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장천1호분 벽화의 남녀쌍인연화화생은 북중국이나 초원지대를 거쳐 불교의 화생 관념 및 조형이 고구려에 전해지면서 곧바로 고구려식으로 소화, 변형된 결과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주역사라는 신화적 관념도 고구려에 새롭게 소개된 서역문화요소라고 할 수 있다. 땅과 하늘세계를 받치는 거대한 거북이나 우강(禺疆)과 같은 거인에 대한 신화전설은 선진(先秦)시기부터 중원지역에서 인구에 회자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의 우주역사는 조형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물론 평양권 중기 고분벽화의 우주역사 가운데 일부는 북중국 석굴사원을 장엄한 불교문화의 소재 가운데 하나인 주유(侏儒)와 관념 및 조형상의 맥락이 닿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분벽화 속 서역인의 용모를 지닌 우주역사의 경우 서역문화의 고구려 전래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서역문화 요소를 내용과 문화권, 고분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고구려 고분벽화의 서역문화적 요소(내용)

유형	문화권		
	평양권	집안권	
인물	일반백성	장천1호분 앞방 북벽	
	씨름꾼, 수박희꾼	안악3호분 앞방 남벽 동쪽벽	각저총 널방 동남벽, 무용총 널방 천장고임, 장천1호분 앞방 북벽
	승려		무용총 널방 동벽
	문지기 역사, 장수	약수리벽화분 앞방 남벽 동쪽, 수산리벽화분 널길 동벽, 서벽, 안악2호분 널길 남벽, 쌍영총 앞방 남벽, 진파리1호분 널길 동벽, 서벽	삼실총 제1실 서벽, 통구사신총 널길 동벽, 서벽, 오회분5호묘 널길 동벽, 서벽
	우주역사	대안리1호분 널방 벽 모서리, 수산리벽화분 널방 벽 상부 소슬 밑	삼실총 벽, 장천1호분 앞방 천장고임 모서리 삼각석 1,3,5층
	천인		장천1호분 앞방 천장고임, 오회분4호묘 널방 천장고임
	여래, 보살		장천1호분 앞방 천장고임 동쪽, 남쪽, 북쪽
기물	악기	안악3호분 회랑 뿔나팔, 담고, 널방 북벽 비파, 통소	무용총 널방 천장고임 뿔나팔, 장천1호분 앞방 천장고임 뿔나팔, 완함, 오회분4호묘 널방 천장고임 요고 기물
	그릇	안악3호분 앞방 동쪽결방 북벽	
장식	팔메트문	강서중묘	오회분5호묘 널방 벽, 오회분4호묘 널방 벽
기법	단축법		장천1호분 앞방 천장고임 동쪽 비천기법
	명암법	대안리1호분 널방 벽 모서리 우주역사, 수산리벽화분 널방 벽 상부 우주역사, 쌍영총 앞방 남벽 문지기 역사	삼실총 제2실 벽, 제3실벽 우주역사, 장천1호분 앞방 천장고임 우주역사
관념	연화화생	성총 널방 벽, 진파리4호분 널방 벽, 강서대묘 널방 천장고임	무용총 널방 천장고임, 삼실총 제2실 천장고임, 장천1호분 앞방 천장고임, 오회분4호묘 널방 벽 관념
	우주역사	대안리1호분 널방 벽 모서리, 수산리벽화분 널방 벽 상부	삼실총 벽, 장천1호분 앞방 천장고임 모서리 삼각석 1,3,5층

### 3. 동서교류의 두 길과 고구려 문화

고구려가 중앙아시아지역과 언제 어떻게 정치·외교적, 혹은 사회문화적 접촉을 시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문헌사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651년경 제작된 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궁전 지 벽화에 고구려인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의 동방사절이 거의 유일한 고구려-중앙아시아 교류의 유적 증거로 거론될 뿐이다. 그러나 고구려가 북중국 외에도 내륙아시아 유목제국들과 오랜 기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촉하였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이 중국 왕조들이나 유목제국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중국 및 유목제국을 매개로 한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직간접적인 교류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더욱이 위에서 차례로 살펴본 고구려 고분벽화 속의 서역문화 요소 가운데 일부가 매개자, 전달자의 변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지역이 생각보다는 밀접한 교류관계를 유지하였을 가능성조차 고려하게 한다.

고구려 사절이 소그드왕국의 땅 사마르칸드로 가기 위해 택한 길은 당의 영토를 통과해야 하는 북중국길이 아니라 돌궐제국의 영역 안을 지나는 초원길이었을 것이다. 평양-국내성-부여성-영주, 혹은 평양-박작성-요동성-영주를 잇는 두 교통로를 따라 움직이던 사절단은 영주에서 곧바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 송경령-황수석교-구륜박으로 이어지는 해·실위로(奚·室偉路)를 선택하여 몽골고원 동부에 이른 뒤 초원지대를 동서로 가로지르며 사마르칸드 쪽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외에 영주에서 백랑성-삼장구-이어진-평성을 잇는 길로 나아가 평성에서 장성을 넘은 뒤 몽골초원의 오르콘강까지 북상하는 중국과 북방 유목세계와의 말 교역로를 택하여 초원길을 접어들 수도 있지만 고구려와 중국 왕조 사이에 정치·군사적 긴장이 유지될 경우에는 선택하기 어려운 길이다. 영주-유주-낙양-장안-하서회랑-서역남북로-파미르고원-사마르칸드로 이어지는 북중국길은 동서교류의 교역을 담당하던 대상들이 선호하던 길이지만 고구려가 정치·외교적 목적으로 중앙아시아 세력과 접촉하고자 할

때 사용하기는 어려운 교통로라고 해야 할 것이다.

316년 서진의 멸망으로 북중국이 5호16국시대라는 대분열기에 접어들자 고구려는 주로 중국의 하남, 하북, 산둥 일원을 주 무대로 삼아 명멸한 왕조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자연 5량으로 대표되는 서북지역 왕조들과 직접 맞닥뜨릴 일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중국을 일시 통일한 전진(前秦)의 사절이 고구려에 온 372년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357년 목서모지명으로 잘 알려진 안악3호분 벽화의 서역문화 요소들은 선비 모용씨가 세운 전연(前燕)과의 접촉을 통해 고구려에 흘러 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372년 전진왕 부견(苻堅)이 고구려에 승리 순도(順道), 아도(阿道)와 함께 불상, 경문을 보내자 소수림왕은 왕명으로 국내성에 초불란사와 이불란사를 지어 두 승려가 머물면서 불도를 닦을 수 있게 한다. 서방으로부터 전래된 새로운 종교 불교가 고구려에 공식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비록 북중국 왕조를 거쳐 동방에 전해졌지만 불교의 수용은 인도·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문화가 고구려에 들어와 고구려 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뜻했다. 실제 불교는 중국문화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 서아시아의 문화가 고구려문화의 새로운 구성요소로 자리 잡는 데에 매우 주요한 매개자, 전달자였다. 불교는 그 자체가 새롭고 이국적인 관념체계요 문화집합체이기도 했다.

비수에서의 패전을 계기로 전진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자 북중국은 다시 군웅의 할거지로 변모했다. 그러나 불교를 통해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문화가 동아시아로 흘러드는 현상은 계속되었다. 오히려 북중국의 재분열이 불교가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데에 기여한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연의 후신인 후연(後燕)을 비롯하여 선비족 탁발부의 북위(北魏), 서북의 후량(後凉) 등이 다투어 사원을 세우고 유명한 승려를 모셔가 불경 번역에 힘쓰거나 불교신앙을 확산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5세기에 접어들어 북위가 북중국을 통일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4강 중심의 세력균형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고구려는 북연(北燕)의 패망을 둘러싼 북위와의 정치적 군사적 줄다리기를 성공적으로

펼쳐 나가면서 동아시아 4강의 한 축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436년 고구려는 북연 왕가와 귀족, 유력 백성들의 고구려 망명을 성사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에 독자적 세력을 구축한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이후 고구려는 중국의 남북조 및 내륙아시아의 유연과 지나치게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다른 강국들이 요하 이동의 세계를 고구려의 천하로 인정하는 한 고구려 역시 그 너머의 서쪽 세계에서 진행되는 여러 세력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이나 충돌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5세기 전반 동아시아 4강 체제가 성립하면서 고구려와 유연, 북위, 송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는 매우 활발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북연 왕족의 송환 여부를 둘러싼 고구려와 북위, 송 사이의 갈등이 고구려와 송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까지 증폭된 적도 있고, 북위 왕가와와의 혼사 문제로 고구려와 북위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6세기 전반까지 고구려와 동아시아의 다른 강국들 사이는 대체적으로 원만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고구려와 이들 강국들 사이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위한 토양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고구려가 이들 강국과 주고받은 외교사절들은 정치·외교적 현안을 다루는 것 이상으로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사이의 사회문화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후원하는 역할도 담당했다고 볼 필요가 있다.

5세기 중엽 이후 고구려는 빈번히 북위에 사절을 보냈으며 북위 사절 역시 여러 차례 고구려에 왔다. 고구려가 유연에 사절을 보낸 횟수는 북위에 비할 바 아니나 479년 대흥안령산맥 남변의 유목민족 ‘지두우(地豆于)’ 분할을 논의한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두 나라는 정치·외교적 현안에 대해서는 충돌보다는 협의를 택할 정도로 상호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439년 북량(北凉)의 멸망으로 북위가 북중국의 패자가 된 이래 동아시아에 4강체제가 들어섰지만 고구려, 유연, 송에 비해 국력이 강대한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고구려와 유연 사이는 우호적일 필요가 있었으므로 두 나라가 외교적 호의를 상대에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기도 했다.

유연은 5세기 초 내륙아시아 유목세계를 제패하여 동으로는 대흥안령산맥, 서로는 준가르분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고 중앙아시아 일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는 6세기 중엽까지 계속되었다. 내륙아시아 패자로서의 유연의 이러한 입지가 6세기 전반까지 고구려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는 기반이 되었다. 유연이 새로 일어난 돌궐에 의해 패퇴하여 유목세계의 전면에서 퇴장하는 550년대까지 중앙아시아의 동부와 서부는 북위와 유연의 세력이 서로 맞닿아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잦아들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일대는 불교문화가 융성하고 인도와 서아시아로부터 새로운 문화가 계속 유입되어 다양한 문화의 혼합과 절충이 계속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이 지역은 기원전 2세기 이래 오랜 기간 동서 비단무역의 중개지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며 각종 이국적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문화적 용광로이자 호수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다. 때문에 북위와 유연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나 지배권을 놓고도 지속적으로 정치군사적 갈등과 충돌을 반복하였다.

5세기 중엽으로 편년 되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서역문화 제재가 빈번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고구려와 북위, 고구려와 유연 사이의 교류를 통해 서역문화의 수용이 이루어진 때문이라고 하겠다. 특히 집안지역의 삼실총이나 장천1호분 벽화에 보이는 전형적인 서역인 형상의 우주역사, 장천1호분 벽화의 여래와 보살, 비천, 회화기법으로서의 단축법과 명암법 등은 고구려와 유연 사이의 교통로를 거쳐 동방에 전해진 서역문화요소임이 거의 확실하다. 한편, 평양권 고분벽화에서 발견되는 서역인 형상의 역사형 문지거나 하늘세계를 받치는 우주역사 표현에도 명암법 등이 구사되고는 있으나 어설픈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런 기법이 어떤 경로로 고분벽화 묘사에 적용되었는지를 추정하기 어렵게 한다. 물론 같은 시기 북위 미술에서 5세기 고분벽화에서와 같은 형상의 역사상을 찾기는 쉽지 않다. 어쩌면 5세기 평양권 고분벽화의 서역인 형상 역사는 평양지역 화가들이 외래의 새로운 제재를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6세기 전반에도 고구려와 유연 사이의 우호적 교류에 큰 변화를 줄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와 북위 사이의 교류는 523년 일어난 북위 6진의 반란을 전후하여 상당한 기간 중단되거나 불안하게 진행되었다. 한화(漢化) 추세와 호풍(胡風) 유지를 둘러싼 북위 지배세력 내의 오랜 갈등이 6진의 반란으로 일거에 폭발하면서 유사한 반란이 잇따르게 되었고 마침내 534년 북위가 동위(東魏)와 서위(西魏)로 두 쪽이 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이제 북중국 방면에서는 동위와 서위라는 두 세력과 별도로 교섭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동위와 서위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었으므로 북중국 비단길을 통한 고구려의 동서교류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6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고 고구려 세력권으로 여겨지던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질서도 요동치게 되었다. 6세기 전반부터 균열의 징후를 보이던 고구려의 내정도 심각한 분열과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다. 552년 돌궐과 유연 사이에 내륙아시아 유목세계의 패권을 둘러싼 큰 충돌이 일어나 유연이 패퇴하면서 그 파고가 고구려에까지 미쳤다. 동위와 서위에서는 선비 탁발씨의 왕실이 차례로 몰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두 나라를 대체하는 새로운 왕조들, 곧 북제(北齊)와 북주(北周)가 차례로 등장하였다.

새로이 동아시아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돌궐, 북제, 북주는 동북아시아를 세력권으로 삼고 있던 고구려의 패자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으려 하였다. 동북아시아 내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연합군을 일으켜 고구려의 남쪽 국경으로 밀고 들어왔다. 고구려 내에서는 왕위계승과 국정주도권을 둘러싼 신구귀족세력 사이의 권력투쟁이 본격화 하여 유혈충돌까지 일어났다. 이처럼 고구려를 둘러싼 내외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5세기 전반 이래 안정과 번영을 구가했던 고구려의 사회와 문화도 커다란 변화와 변혁의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6세기 전반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고구려와 유연의 우호적 외교관계는 초원길을 통한 동서교류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보인다. 6세기 집안지역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팔메트문은 이 시기 동서교류의 산물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또한 북위의 내정 혼란으로 말미암아 북중국 비단길을 통한 고구려의 동서교류는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지라도 낙양 천도 이전 북위 문화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번영했던 평성지역은 여전히 고구려에 동서교류의 무대를 제공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평성일대는 고구려로 이어지는 초원길의 동방 거점 가운데 하나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세기 고분벽화의 연화화생이나 사방연속변형귀갑문 등은 평성지역에서 번성하던 문화의 고구려식 변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세기 중엽 내륙아시아 유목세계의 패권이 돌궐에게로 넘어간 뒤에도 초원길을 통한 고구려의 동서교류는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와 돌궐 사이의 일시적인 충돌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곧바로 우호적인 외교관계가 성립하여 사절을 주고받았음을 돌궐비문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6세기 후반 고구려와 북제, 혹은 북주 사이에는 일시적이거나 긴장관계가 유지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는 북중국의 불안정한 정세로 말미암은 면이 크다.

6세기 중엽 이후, 고구려의 동서교류가 고분벽화 제재 구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 시기로 편년 되는 벽화고분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현실적으로 분석 대상이 거의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벽화 구성이 단순화 하면서 제재 분석이 어려워진 때문이기도 하다. 607년 돌궐 계민가한(啓民可汗)의 아장에서 수(隋) 양제(煬帝)에게 발견되어 곤욕스런 처지에 빠졌던 고구려 사절이나, 651년경 사마르칸드의 소그드왕 와르후만을 방문했던 고구려 사절의 존재로 보아 초원길을 통한 고구려의 동서교류는 7세기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고구려 사절단의 이러한 활동이 고구려 사회 문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아직은 미지의 상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5

# 동아시아와 발해사

한규철

---

경성대 사학과 교수



## I. 중국의 역사왜곡-역사침탈과 발해사

- ‘동북공정(東北工程: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와 현황에 한 대형 학술 과제.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2002년부터 5년간 실시
- 동북공정의 배경: ① 소수민족사의 중국사화(통일적 다민족국가론) 세계문화유산등록으로 선전 ② 한반도 정세변화와 영토방어 및 확장. 북한 정권의 항배에 따른 중국의 개입에 대한 논의.
- 중국의 소수민족사 연구 변화: 문화대혁명(1967-1976), 개혁개방 이후 개방과 함께 대한족주의에서 통일적다민족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으로.
- 서남공정(西南工程): 티벳. 1986부터 10여년. 서북공정, 신장, 운남공정, 하상주삼대공정.
- 정치의 연속성강조: 당의 지방정권론: 책봉(홀한주도독부의 홀한주도독 忽汗州都督府) 조공관계. 발해 → 당 100회(後梁, 後唐10회 포함), 당 → 발해 30회 왕래. / 문화적 종속성 강조.
- 평가: 패권주의적, 제국주의적
- 주은래周恩來 전 중국 총리는 고구려·발해를 조선사로 인정하였다. 고구려는 물론이고 발해사도 조선사의 범주이다. (『周恩來總理談中朝關係』, 『外事工作通報』, 1963年10期). 이로 인해 1962~1963년 중국과 북한간의 대규모 고구려·발해유적 공동발굴이 이루어졌다.
- 국내의 반성론 : 평화론에 따른 국사해체론(동아시아론)의 허와 실. - 한국사의 방어적 민족주의. 왕조와 종족을 계통으로 삼는 동아시아의 특징 고려해야. 정치와 역사는 구별해야
- 올바른 역사인식의 자세: 고대는 조선사의 범주였다가 어느 시기부터 중국사의 영역이 되었다.

## II. 발해의 자주성

### 1. 고구려

- 한국인의 가장 오랜 삼국사기에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우리[我, 該]라고 표현하고 있다(역사공동체 의식)
- 구당서, 신당서는 본기와 다른 동이열전에 기록하고 '해동삼국(海東三國)'으로 지칭
- 고려가 국호를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로 지칭 / 코리아(KOREA)의 원어도 고구려에서 유래
- 현대인의 후손의식: 기억공동체의 문화계승성. 횡성(橫城) 고씨(高氏)의 족보는 장수왕 후손을 자처한다.

### 2. 발해

- 동북공정 논리인 발해의 당나라 지방정권설 비판: 책봉은 어떠한 정치적 구속력도 없는 왕조에 대한 승인 외교행위로서 기능. 조공은 정치적 의미보다 경제적 의미가 컸다.
- 국호, 시호, 연호의 자주성문제, 자주적이고 전제적 정치구조. 시호(諡號)와 연호(年號)를 '사사로이' 사용하였다고 전한다.(신당서:新唐書)
- 한국사 왕조 수명: 발해(渤海): 698~926, 228년. 신라(新羅): B.C.57~935, 992년. 고구려(高句麗): B.C.37(B.C.277)~668, 705 (945)년. 백제(百濟): B.C.18~663, 681년. 가야(加耶): 42~532, 490년. 고려(高麗): 918~1392, 474년. 조선(朝鮮): 1392~1910, 518년
- 발해보다 단명했던 중국과 만주왕조의 수명: 진(秦): BC 221~BC 207, 14년. 수(隋): 581~618, 37년. 북송(北宋): 960~1126, 166년. 남송(南宋): 1127~1279, 152년. 요(遼): 907~1125, 218년. 금(金): 1115~1234, 119년. 원(元): 1271~1368, 97년

- 발해보다 장수했던 중국과 만주왕조의 수명: 한(漢): B.C.206~24, 230년. 당(唐): 618~907, 289년. 명(明): 1368~1662, 294년. 청(淸): 1616~1911, 295년
- 고씨 고구려에서 대씨 발해황제국이 되다.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乞乞仲象)의 걸걸씨가 대씨(大氏)가 된 이유: 걸걸(크다)하다(?)
- 황상(皇上), 황후(皇后)를 자칭했던 황제국이였다. 정효공주묘의 묘지명. 제3대 문왕(文王 737~793)의 효의황후(孝懿皇后)와 9대 간왕(簡王 817~818년)의 순목황후(順穆皇后): 2004~2005년 길림성의 용두산 고분군.
- 발해는 당과의 관계에서는 왕을 칭하고 안으로는 황제를 자칭하였던 이른바 '내제외왕(內帝外王)'의 외교전략을 취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 당을 공격할 정도로 자주적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732년의 등주공격 사건
- 경제·문화적인 면에서는 당을 필요로 했지만 정치·경제적 면에서는 독자성 유지

### Ⅲ. 발해의 건국과 연구

- 발해사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 기록의 부재. 신라중심적이고 중국중심적인 역사관  
소신라 → 통일신라 → 대신라
- 발해건국과정: 발해의 건국과 남북국의 형성  
고구려유민의 강제 이민(고선지, 이정기 집안 등)과 대조영 집안의 이주  
고구려 유민들의 고구려부흥운동과 발해건국.  
이진충의 반란과 발해건국 - 건국의 필연과 우연
- 신라통일의 의의: 삼국민의 당나라 축출전쟁, 한국사 최초의 민족공동체형성운동

- 객관적 발해사를 알기 위한 전제  
신라, 중국, 일본의 발해에 관한 기록-발해인들의 입장에서 보아야  
중국중심의 역사관과 왕조중심의 역사관 극복하면서 파악되어야

## IV. 발해의 고구려 계승관계

### 1. 영역계승관계로 본 발해국

- 고구려땅이 발해땅이 되었다. (대략 최소 45만 km<sup>2</sup>에서 최대 84만 km<sup>2</sup>)
- 고구려보다 1.5배에서 3배 그리고 신라 보다 4배에서 8배. 남북한(10만+12만)보다 4배 가까웠고 일본보다도 2.2배 정도가 되었던 동북아 최대의 해동성국이었다.

### 2. 종족계통 상에서의 발해인

- 발해인들은 누구의 후손이라 하였는가?
- 제2대 발해 무왕 대무예에 책봉된 ‘계루군왕(桂婁郡王)’의 계루부는 고구려 5부의 하나.
- 당나라 은 공예품인 도관칠국육판은함명문(都管七国六瓣銀盒銘文)에 발해를 ‘고려국(高麗國)’이라 하고 있다. 발해가 고구려계승국이라 일 반화되어 있던 근거.
  - ① 고구려와 다른 말갈족의 후예로 보는 단일계통설. 속진肅慎(先秦)→ 음루挹婁(漢)→물길勿吉(後魏)→말갈靺鞨(隋·唐)→여진女眞
  - ② “지배층은 고구려유민 피지배층은 말갈”이라는 이원적 주민구성론 (시라토리 白鳥庫吉)
- 말갈이란 당·송인들이 그들의 동북방주민들을 범칭(汎稱), 비칭(卑稱) 하였던 타칭의 종족명
- 말갈은 대체로 흑수(黑水)말갈이고, 말갈로 불리는 ‘고구려말갈’은 발

해인이 되었다.

- 7부 말갈(白山, 속말粟末, 불넬拂涅, 호실號室, 안거골安車骨, 백돌伯咄, 흑수黑水)
- 중국측 7말갈 기록의 특징-북제서北齊書, 무성제기武成帝紀 하청河清 2년(563)
- 동이전 및 북적열전(北狄列傳)의 말갈관련 기록  
『삼국지』(동이 읍루), 『진서』(동이 숙신) 『수서』(동이 말갈, 북적 거란)  
『구당서舊唐書』(북적北狄 말갈靺鞨 발해말갈渤海靺鞨), 『新唐書』(北狄 黑水靺鞨 渤海)
- 삼국사기의 말갈(중앙과 지방) 인식은 바로 말갈이 비칭이었음을 반증
- 동명성왕 및 온조왕대에도 말갈출현. 고구려변방 부용세력, 백제·신라 변방인
- 대조영(大祚榮)은 송화강지방출신[속말말갈] 고구려인
- 백주태씨(白州太氏 영순공파와 협계공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조영의 후손 자처

### 3. 언어계통 상에서의 발해인

- “풍속은 고구려 및 거란과 같고, 문자 및 전적(典籍)[서기書記]도 상당히 있다”(구당서)
- “왕을 일컬어 ‘가독부可毒夫’, 또는 ‘성왕聖王’, 또는 ‘기하基下’ 라 하고”(『신당서』)
- 발해문자에 대한 문제(발해가 자못 문자文字와 서기書記가 있었다)
-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언어 사용 /고구려 및 발해어의 잔재/ 한국어와 만주어의 친족성

### 4. 문화계통 상에서의 발해인

#### (1) 고분을 통해 본 발해인

- 지금까지의 고구려 및 발해 고분에 대한 견해의 문제들(고구려: 돌계통의 무덤, 말갈: 토광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고분, 그리고 종족에 따른 무덤 구별의 문제점.

## (2) 주거문화를 통해 본 발해인

- 지배층 중심의 주거 기록: 기와
- “일반인의 생활은 대부분 가난하고 겨울철에는 구덩이를 길게 파서 밑에다 숯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한다.”(구당서) 온돌문화의 고구려계 승성. 현대 한국인의 문화적 계승성

- (3) 수제 등 저급의 말갈관(靺鞨罐)과 운제 등 고급의 고구려·발해토기 구분의 문제. 지방문화와 도성 및 귀족문화로 구분하여야. 종족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5. 남북국시대의 형성과 전개

- 교섭의 근거: 기록-신라도新羅道. 유적-24개 돌 유적, 역참驛站으로서
- $15+33+21=69$ (교섭기)  $72+87=159$ 년간(대립기)

### (1) 발해건국기의 남북교섭(698-713) 15년

- 내빙인원(來憑隣援)(와서 인접하기를 청하다), 신라 제5품 대아찬(大阿飡) 사여 사불허북국거상표 謝不許北國居上表(최치원) - 신·당의 접근을 막기 위해
- 건국 초의 남북 교섭 성공

### (2) 발해 왕권확립기의 남북대립(713-785) 72년간

- 신라의 축성과 남북대립.
- 발해의 당나라 등주공격과 남북 대립(732)



- 일본과 발해의 신라 협공계획과 무산(758-764) 小野田守와 揚承慶의 왕래
- 당 조정에서의 자리다툼사건(席次爭長事件) '발해가 신라보다 위에 앉는 것을 거절한 것을 감사하는 글' (사불허북국거상표 謝不許北國居上表)

### (3) 신라 및 발해 귀족상쟁기의 남북교섭(785-818) 33년간

- 원성왕 6년(790) 3월 일길찬-吉滄 백어伯魚를 사신으로 하여 北國에 보냈다.
- 헌덕왕 4년(812) 9월 급찬級滄 송정崇正을 사신으로 하여 北國에 보냈다. 원성왕의 집권과 남북교섭
- 애장왕哀莊王의 일본과 당에 대한 외교노력의 의미

### (4) 발해의 영토확장과 신·당 밀착기의 남북대립(818-905) 87년간

- 헌덕왕의 집권과 남북교섭(당과의 교섭 노력과 경과, 이사도李師道 반란(818-819)과 신라의 3만 파병.
- 신·당의 밀착
- 김헌창金憲昌 난에 대한 가혹한 탄압(822)
- 한산주漢山州에 1만명 징발하여 패강溟江 유역에 3백리 축성.
- 당나라 빈공시賓貢試에서의 경쟁 - 오소도烏炤度和 이동李同 875년, 오광찬烏光贊과 최언위崔彦擣 906년경 - 최치원의 태도

### (5) 발해 멸망기의 남북교섭(905-926) 21년간

- 발해의 사실파견과 신라와의 교섭
- 신라의 도움약속과 약속 불이행
- '은밀히 신라제국과 돕기로 약속하다' (음여신라제국결원陰與新羅諸國結援)
- 남북국 교섭 최후교섭의 한국사적 의미. 남북국 대립의 현상고착 결과의 의미

## V. 발해국의 문화 유산

- 구국舊國 지역(첫수도, 길림성 돈화시 일대)
- 상경용천부 지역(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 일대)
- 동경용원부 지역(길림성 훈춘시 팔련성 일대)
- 중경현덕부 지역(길림성 화룡시 일대)
- 서경압록부 지역(길림성 집안, 임강시 일대)
- 러시아 연해주: 꼬르사꼬프카 지역, 꼬라스키노
- 남경남해부 지역(북한 청진시 등)

### 〈참고문헌〉

- 한규철, 1994, 『발해의 대외관계사-남북국의 형성과 전개』, 신서원
- 송기호, 1995, 『발해의 정치사 연구』, 일조각
- 노태돈 외, 1996,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 한규철 외, 2007,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편
- 한규철, 2007, 「발해의 주민구성과 귀속문제」 『한국고대사연구의 새동향』, 한국고대사학회
- 한규철 외, 2008, 『발해의 5경과 영역 변천』, 동북아역사재단 편
- 정석배 외, 2009, 『동아시아의 발해사 쟁점비교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송기호, 2011,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한규철의 발해사 홈페이지 <http://www.ks.ac.kr/~palhae>)

6

## 지역사와 교류사로서의 왜관

김동철

---

부산대 사학과 교수



## 1. 머리말

부산은 17~19세기에는 조선 안에서 일본과 교류하는 유일한 통로의 도시였다. 그것은 당시에는 왜관이 부산에만 있었기 때문이다. 왜관에는 대마도 출신 일본인이 5백명 정도 살고 있었다. 왜관은 조선 안의 일본이었다. 부산은 17세기 이후부터 1876년 개항 이전까지 외구인[일본인]이 상주한 유일한 공간이었다. 17~19세기 한일교류사와 부산지역사의 접점으로서의 왜관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2. 고려시대의 금주(金州, 김해) 객관(客館)

우리나라에 왜관이 언제 처음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고려시대에는 金州(金海)에 일본 사신이 머무는 객관이 있었다. 객관은 왜관과 비슷한 기능을 한 것 같다.

㉠ 고려사 권7, 문종 10년(1049) 10월 기유  
일본국 사신들인 정상위권예(正上位權隸) 등원(藤原)과 조신(朝臣) 뇌충(賴忠) 등 30명이 금주(金州)에 와서 머물렀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김해도호부 산천  
명월산(明月山) : 부 남쪽 40리 지점에 있다. 산밑 구량촌(仇良村)에 견조암(見助岩) 수참(水站)이 있어서 왜국(倭國) 사신을 접대한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동사무소가 위치한 구량마을로 추정. 주변에 수참마을도 있음.
- 최근 녹산동 동사무소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구량마을 일대가 사라졌다.

## 3. 15~16세기의 '삼포왜관(三浦倭館)'

조선에 건너오는 일본인이 증가하자, 조선의 군사·경제적 부담은 증가

하였다. 이들을 통제할 필요에 따라, 일본인이 정박하여 무역할 수 있는 포구를 제한하였다.

1407년(태종 7) 동래 부산포와 웅천 내이포(진해시 제덕동) 2곳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왜관을 설치하였다. 1426년 엽포(울산시 엽포동)가 추가되면서 '삼포왜관'으로 정착되었다. 서울에는 일본사신이 머무는 객관인 동평관이 있었다. 왜관의 치폐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삼포왜관은 1426년에서 1510년까지 지속되었다.

<표 1> 조선전기 왜관의 치폐

치폐 시기	장소	浦所 수	비고
1407년(태종 7)	부산포, 내이포(제포)	2	포소 제한
1418년(태종 18)	부산포, 내이포, 엽포, 가배량	4	
1419년(세종 1) ~ 1423년(세종 5)	포소 1차 폐쇄	×	대마도정벌
1423년(세종 5)	부산포, 내이포	2	
1426년(세종 8)	부산포, 내이포, 엽포	3	삼포개항
1510년(중종 5) ~ 1512년(중종 7)	포소 2차 폐쇄	×	삼포왜관
1512년(중종 7)	제포	1	임신약조
1521년(중종 16)	부산포, 제포	2	
1544년(중종 39) ~ 1547년(명종 2)	포소 3차 폐쇄	×	사량진왜변
1547년(명종 2)	부산포	1	정미약조
1592년(선조 25) ~ 1607년(선조 40)	포소 4차 폐쇄	×	임진왜란

조선에 건너와서 사는 일본인들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들을 항거왜인(恒居倭人)이라 불렀다. 15세기 후반 삼포의 항거왜인 수를 보면 대략 <표 2>와 같다.

〈표 2〉 15세기 후반 삼포의 항거왜인 수

연대	제 포		부 산 포		염 포		합 계	
	호	구	호	구	호	구	호	구
세조 12(1466)	300	1,200여	110	330여	36	120여	446	1,650여
성종 5(1474)	308	1,722	67	323	36	131	411	2,176
성종 6(1475)	308	1,731	88	350	34	128	430	2,209
성종 25(1494)	347	2,500	127	453	51	152	525	3,105

1466년 1,650여명이던 것이 1494년에는 3,105명으로 거의 2배 정도 늘어났다. 1494년 자료에 한정하여 보면, 제포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80.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부산포는 14.6%, 염포는 4.9%이다. 따라서 삼포 가운데는 제포가 가장 비중이 큰 항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1〉처럼 1544년의 사랑진왜변 이후에는 포소가 폐지된 후 1547년 부산포만 다시 허용하였다. 이것이 임진왜란 이후 부산에만 왜관이 설치되는 단서가 되었다.

㉠ “富山浦에 와서 거주하는 왜인이 혹은 商賈, 혹은 遊女라 칭하면서 日本客人과 興利倭船이 이르러 정박하면 서로 모여서 支待하고 남녀가 섞여 즐기는데, 다른 浦에 이르러 정박하는 客人도 또한 술을 사고, 바람을 기다린다고 핑계하고 여러 날 날짜를 끌면서 머물러 虛實을 엿보며 亂言하여 폐단을 일으킵니다.” 〈『태종실록』 태종 18년(1418) 3월 2일(임자)〉

㉡ 내이포에 정박했던 왜인들이 서울에 갔다 오는 길에는 모두 東萊溫井에서 목욕하는 까닭에.....사람과 말이 모두 곤폐하오니, 금후로는 내이포에 정박한 왜인들은 영산 온정에서, 부산포에 정박한 왜인은 동래 온정에 목욕하도록 하여 길을 돌아가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세종실록』 세종 20년(1438) 3월 1일(을유)〉

#### 4. 닫힌 세계 속의 열린 틈새

##### ① 쇄국(鎖國) 속의 교류

17세기 이후 조선과 일본은 자국민이 해외에 나가 거주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였다. 물론 외국인이 자기 나라 안에 들어와 일정기간 거주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이런 정책을 海禁, 쇄국정책이라 불렀다. 그러나 닫힌 세계 속에서도 조그만 틈새가 있었다. 최소한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머물게 하였다. 일본 나가사키(長崎) 데지마(出島)에 있는 네덜란드상관이나, 중국인 거주지, 중국의 복주(福州)와 일본의 가고시마에 있는 유구관(琉球館), 조선의 부산에 있는 왜관(倭館) 등이 그것이다.

##### ② 통신(通信)의 나라, 무상(貿商)의 나라

일본의 대외교섭관계 사료집 『通航一覽』(1850~1853년경 편찬)에는 17세기 이후 일본의 외국과의 교섭 관계를 通信의 나라[조선·유구]와 貿商의 나라[중국·네덜란드]로 구분하였다. 무상의 나라는 단순한 교역국이었다. 유구가 1609년 이후로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통신의 나라는 조선뿐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 사신이 상경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17세기 이후 상경한 것은 예외적으로 1629년 1번뿐이었다. 동평관도 폐지되었다. 양국간의 외교 무역은 부산에서만 이루어졌다. 부산은 한일 교류의 유일한 통로로 자리잡았다.

#### 5. 부산 왜관의 변천

##### ① 절영도왜관

1601~1607년까지 존속. 薩摩堀(임진왜란 때 薩摩藩 島津義弘 군대가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 해안의 모래톱을 파서 만든 정박지)의 남동 일대, 현재 영도구 대평동 2가 일대. 절영도왜관의 불편함으로, 새 왜관의 필요성은



1606년에 대두. 부산진 구진(舊鎭)과 멀지않은 곳, 즉 새 부산진의 서쪽 5리 정도 떨어진 곳을 결정하여, 1607년 봄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 ② 두모포왜관

1607년에서 1678년까지 존속하였다. 위치는 동구청, 수정동시장 부근 일대로 보고 있다. 왜관 동문 밖에는 좌자천(좌천)이 흐르고 있었다. 3면에는 담장이 서 있고, 앞 바다에는 수책이 세워져, 4면이 모두 둘러싸여 있는 형태였다. 규모는 약 1만평 정도. 일본측은 부지 협소, 선창의 악조건 등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이전을 요구하였다.

왜관은 1678년 용두산공원 부근으로 옮겨졌다. 이 왜관이 초량왜관이다. 신관인 초량왜관에 대해 두모포왜관을 고관, 구관이라 불렀다. ‘고관 입구, 고관파출소’ 등 고관이란 이름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두모포왜관은 왜관도가 없어서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두모포’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 기장에 두모포진성. 부산포 진관 소속의 수군기지를 부산으로 옮기는 군사개편에 따라 두포포진은 1629년(인조 7) 성을 그대로 두고 영을 부산 수정동으로 옮김. 두모포왜관의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큼.

## ③ 초량왜관

가장 중심되는 건물은 왜관 책임자가 있는 관수가(옥). 용두산을 중심으로 동관(부산호텔 쪽)과 서관(대각사 쪽)으로 나뉨. 동관에는 관수가, 개시대청, 재판가(동관 3대청), 역관숙소, 절(東向寺), 신사 등 많은 건물이 있었다. 동쪽 해안에는 선창, 뱃사공 숙소, 창고, 경비숙소 등. 동관은 생활, 행정, 무역 공간적 성격. 서관에는 일본 사절의 숙소가 있었다. 서관은 3대청에 2행랑씩 달려있는 ‘3대청 6행랑’의 모습이다.

관수가 자리에는 1876년 개항 이후 일본 영사관→ 부산이사청→ 부산부청이 들어섰다. 1936년 부산부청이 옛 시청 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250여년(1678-1936년) 동안 부산의 일본인을 다스리는 중심지였다.

약 10만~11만평 방대한 규모에 일본인 마을과 같은 모습. 500명 정도의 일본인(대마도 사람) 관리와 상인이 거주. 가족 동반 금지. 남자만의 마을. 국가 기밀 누설, 밀무역, 조선인과의 자유로운 접촉 등을 막기 위하여, 2m 높이 돌담. 출입문 守門을 나서면 주위로 6개의 복병소(초소). 특별한 허가 없이 왜관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였다.

왜관 밖에는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연향대청(연대청, 광일초등학교 부근. 대청동 지명), 일본 사신이 국왕의 위패에 절하는 객사, 역관들이 거주하는 성신당·빈일헌 등 조선측 건물.

## 6. 초량촌과 초량촌 사람들

### ① 설문設門과 신초량촌新草梁村

초량왜관 밖에 있던 조선인 마을 초량촌의 호수는 18세기초가 되면 대략 70~90호 정도. 훈도청, 별차청, 출사청 등이 모두 초량촌 안에. 일본인들은 훈도·별차에게 출입한다는 것을 핑계로 초량촌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 1708~1711년 재임)의 주장에 따라 1709년 담장을 쌓고 「설문(設門, 新門)」이라는 문을 만들어 출입 통제. 문안에 있던 민가는 모두 담장 밖으로 이주시켰다. 설문밖에 신초량촌이 형성되었다. 1709년에는 초량왜관의 담장을 흙담에서 돌담으로 바꾸었다. 설문은 조선인 사회와 일본인 사회를 구분짓는 중요한 경계였다.

조시(朝市)는 아침장이다. 일본인이 먹을 생선, 과일, 채소, 쌀 등을 공급할 통로가 필요. 이를 위해 조선 정부가 허락한 시장. 매일 아침-정오에 왜관 수문(守門) 밖에 서는 장.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왜관 주변 사람. 중시되는 사람은 왜관에 인접한 초량촌 사람들이다.

조시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 점차 여자, 나이 어린 여자들이 참여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여성이 늘어나고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조선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 사이에는 단골관계. 초량촌 여자들에게 버선·토시 등을 지어 줄 것을 부탁할 정도였다. 밀거래, 교간, 난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왜

관 담장을 넘나들며 교류. 기생도 출입이 허가되지 않았다. 매매춘의 폐단. 조선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교간사건(交奸事件). 조선 풍속상 일본인과 교간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못하는 커다란 사회문제였다.

## ② 소통사

소통사는 사절 宴享의 준비, 양국인의 왕래 규제, 왜관의 물품 관리, 통역 등 왜관의 일상적인 직책은 물론, 통신사행·문위행의 수행 등 실로 다양한 대일교섭 실무를 맡고 있었다.

일본측은 외교·무역을 위해 조선측 역관이 누구이며, 성향은 어떤지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마도주는 역관에게 각종 물화를 지급하여 교섭을 有利하게 이끌었다.

소통사는 “자신들은 조선인이지만, 오로지 대마도를 위해 일한다”고 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도 「小通事의 무리가 태반은 倭奴들의 복심이 되었으므로, 누설되지 않는 일이 없고 전해지지 않는 말이 없다」고 하여, 일본인 심복으로 인식.

소통사는 초량촌민 중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 대표적 인물이 朴琪淙. 1869~1871년 당시 동래부 소통사였다. 소통사의 후손들은 그 선조들이 대일 외교 업무에 종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06년 박기종의 주도하에 「유원각선생매안감고비(柔遠閣先生埋案感古碑)」를 세우기도 하였다.

초량촌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만나고, 교류하는 삶의 터전이였다.

## 7. 음식문화의 교류

### ① 조선식 요리

왜관에 사는 일본사람들이 조선 요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일상식보다는 향응요리가 더 많다. 사신이 왕래할 때마다 외교의식이 되풀이되고, 의식이 끝나면 조선쪽에서 술과 향응요리를 내놓았다. 소, 돼지 같은 육식 재

료를 사용하는 조선식과 그렇지 않는 일본식은 서로 취향을 달리 하였다. 일본에서는 멧돼지, 사슴고기는 식용으로 쓰였지만, ‘네 발 달린 짐승’은 기피 대상. 조선 요리는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반드시 들어가기 마련. 왜관 사람들은 쇠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모양이나, 대마도의 통역관 小田 幾五郎은 고기맛을 알았기 때문인지 육식을 매우 즐겼다고 한다.

조선 요리에서 김치를 빼놓을 수 없다. 1736년 당시 메뉴에는 아직 김치에 고추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으며, 김치 재료도 배추나 오이가 아니라 무, 파, 미나리, 외 등이었다고 한다. 과자나 떡도 조선 요리에 등장하는데, 모양이나 제조 방법 등을 왜관 사람들은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었다.

## ② 일본식 ‘스기야키(杉焼) 요리’

조선인에게 대접한 향응요리 메뉴 중 가장 많은 것은 스기야키. 왜관에서 조선인에게 접대된 스기야키는 일본 본토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 우선 ‘스기야키’에 들어간 재료의 수가 많다는 점. 일본에서는 보통 3~4가지 종류 정도, 왜관에서는 그보다 3~4배가 더 많은 재료가 들어갔다.

또 하나는 도미, 전복, 달걀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는 점. 도미, 전복, 달걀을 넣고 여러 가지 야채를 추가하여 일본된장과 함께 끓여서 만든 왜관판 ‘스기야키’를 조선인들이 매우 즐겼던 모양. 일본요리는 맛은 좋지만 양이 적다는 불만을 고려한 배려인 것이다. 왜관판 스기야키 요리는 조선요리와 일본요리의 장점을 결합시켜 놓은 두 나라 음식문화가 교차하는 왜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메뉴.

## ③ 화려한 향응요리

스기야키나 나베(鍋)요리는 본격적인 향응요리는 아니다. 코스요리처럼 순서에 따라 나오는 정통 일본요리는 중요한 의식이 거행될 때 제공. 1736년 2월 2일 아사이 요자에몽(淺井與左衛門)이 개최한 석별의 잔치에서 정통 일본요리가 나왔다.

첫번째 주된 요리인 혼젠(本膳), 두번째 주된 요리인 니노젠(二の膳), 거

기에 히키데(引て)와 後段(후식)까지 화려한 향응요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 날 요리에 사용된 음식재료만 해서 71가지. 이 밖에 식단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별실에 있는 조선 하인 23명에게도 ‘1즙 3채’의 요리가 제공. 왜관에 프로 요리사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두 나라의 음식문화가 상호 침투를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

## 8. 부산·김해 등지의 일본풍 유행

왜관을 통해 부산과 주변지역 사람들이 일본인과의 만나는 것이 늘어나면서, 일본의 생활·문화·풍습이 왜관 주변으로 침투하여 갔다. 이학규의 『낙하생전집』에는 19세기 전반에 일본인의 습속과 문물이 동래, 김해 등지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일본식 무늬가 물들여진 붉은 비단을 두른 집부채를 들고 다니고, 좋은 집 처마에는 파려로 만든 일본산 풍경이 달려 있고, 아낙네는 일본 양산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였다. 장날에는 자기로 만든 일본산 베틀이 매매되고, 일본산 미농지(美濃紙)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일이 생겨났다. 스끼야끼를 먹는 풍조가 유행하고, 일본제 모기장으로 여름을 보내며, 일본 소면과 일본술을 찾는 사람도 생겨났다. 일본의 무력을 상징하는 일본칼을 차고 다니는 것을 호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또 일본식 도박이 성행하였다.

미농지는 일본 미노(美濃) 지방에서 생산되는 최상품 종이였다. 동래 학소대 아래에 사는 김이원은 미농지에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정섬이라는 서울사람은 낙동강변 후포에 있는 섬에 내려와 살면서 해산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는 방에 대마도에서 온 국화를 키우면서 즐기곤 하였다. 스끼야끼 등 음식은 이제 김해의 아전이나 부호 등도 즐기는 음식이 되어 갔다. 동래부 사람 김경화는 칼을 애호하는 벽이 있어, 일본 단도 한 자루를 순금 30냥 값을 치르고 3년만에 구입하였다. 이러한 일본풍의 유행은 왜관 주변의 초량이나 동래지역은 김해지역보다 더 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9. 왜관을 통한 경제 교류

### ① 공무역公貿易

거래 주체가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일본산 동, 납, 동남Asia산 수우각(물소뿔), 단목, 명반, 호초 등이다. 조선에서는 이들 수입물품에 대해서 교환비율에 따라 목면을 지급하였다. 물소뿔은 조선 활을 만드는 원료로 수입되었다.

17세기 전반 이후 일본에서 목화가 재배·보급되어, 면포생산과 더불어 조선산 목면의 수요가 감소하였다. 쌀이 부족한 대마도의 요청에 따라 목면의 일부를 쌀로 바꾸어 주었다. 이 쌀을 공작미(公木作米)라 불렀다. 공작미제가 실시된 것은 1651년이다. 목면 300되에 해당하는 쌀 12,000石을 수출하였다. 1660년에 16,000석으로 증가하였다.

### ② 사무역[개시무역]

조선의 무역상인과 대마도 상인의 무역이다. 왜관의 개시대청에서 매월 6회(3, 8일) 실시되었다. 조선측 사료에는 개시라 불렀다. 그러나 실제 열리는 개시일수는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부산지역 5일장: 독지장(1·6日) → 읍내장(2·6日) → 부산장(4·9日) → 좌수영장(5·10일) 체계. 3·8일장이 존재하지 않음. 왜관개시(3·8일)가 5일장의 일환으로 기능.

월 6회 열림. 그러나 18~19세기에 시기가 내려가면서 개시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었다.

#### ㉠ 개시무역의 물품 변화

18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하여 인삼·견직·백사 ↔ 은 무역에서 우피 ↔ 동 무역으로 바뀌었다.

㉠ Silver Road(은의 길)

조선에서 중국으로 사절이 파견될 때 무역자금으로 막대한 은을 가지고 갔다. 이 은은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일본 → 조선 → 중국을 경유하는 Silver Road가 형성되었다.

㉡ Silk Road(비단·生絲의 길)

일본 생사는 나가사키長崎와 대마도를 통해 수입되었다. 장기무역은 1658-1662년, 대마(조선)무역은 1684-1687년에 최전성기를 이룬다. 이후 일본에서는 백사를 자체 생산되는 18세기 중엽까지 조선을 경유하여 중국산 백사를 수입하였다. 중국 → 조선 → 일본을 경유하는 생사의 길이 형성되었다.

## 10. 왜관의 종말

1868년 명치정부 수립. 조선과의 관계에 큰 변화. 대마도는 사절을 보내 신정부 수립을 알리는 書契 전달. 서계 내용의 표현이 종래의 외교 관계와 맞지 않음. 조선측은 서계 거부. 교린체제를 어길 경우는 교섭을 거부한다는 의지.

명치정부, 1869년 조선과의 교제는 외무성 소관, 대마도주는 사절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 일본, 1871년 廢藩置縣 실시. 1872년 5월 왜관 사무를 외무성 소관. 9월 외무성이 왜관 접수. 관수를 외무성 9등출사에 임명 館司에 임명. 대마도 외교권 상실.

조선, 외무성 관리 귀국 시킴. 왜관에 대한 식량 지원과 교역을 중지하는 撤供撤市 단행.

1873년 3월 초량공관을 완전히 접수하여 대일본국공관이라 명칭을 바꾸고, 관수를 면직시켰다. 그러나 종전의 교린외교의 구태를 유지. 최소한의 교류가 유지되고 있었다.

## 11. 맺음말

17~19세기 조선과 일본의 교류는 조선의 통신사, 일본의 年例送使나 差倭와 같은 외교사절의 파견과 왜관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 통신사는 약 200년 동안 12번 파견된 한시적, 제한적, 명분적 교류였다. 왜관은 일상적인 교류의 공간으로 복잡, 구체적, 실리적인 교류였다. 조선 정부는 왜관을 조선 사회와 격리된 닫힌 공간으로서 닫혀 있기를 바랬으나, 실제는 기대와 달리, 왜관은 두 나라의 사람, 재화, 문화, 정보가 교차되고 교류하는 열린 공간의 기능하기도 했다.

조선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왜관은 늘 통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왜관 주변 지역민에게는 왜관은 삶의 터전인 교류의 장소였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의 체결로 부산의 개항이 확정되었다. 부산에 일본의 단독조계가 설치되었다. 초량왜관의 일본식 건물 등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관수옥이 있던 곳에는 그후 영사관, 이사청, 부산부청 건물이 들어섰다. 조계 내에 영사관 건물을 중심으로, 경찰서, 은행, 병원, 상업회의소, 전신국 등 공공건물 배치되면서, 일본의 시가지 방불하는 시가지를 형성하였다. 오늘날 부산 시내의 원형을 만들었다.













## 제2기 가야학아카데미 연구반

**발행처 : 국립김해박물관**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90(621-900)

TEL : (055) 320-6800

FAX : (055) 325-9334

<http://gimhae.museum.go.kr>

**발행일 : 2013년 10월 16일**

**인쇄처 : 김해시민신문(Tel.055-313-2074)**



## 제 2기 가야학아카데미 연구반